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7월 6일)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올여름 시원 · 안전한 사찰서 휴가 만끽할까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휴가지로 문전성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됐던 템플스테이가 여름 휴가지로 주목받으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휴가의 계절 여름을 맞아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심을 떠나 산사에서 불교의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전국 각 사찰들도 바다와 숲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를 선보이며 여름 휴가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전국 143개 사찰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예약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산사에서의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다.

특히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동해 삼화사 등 인기 여름 휴가지인 산과 바다가 맞닿은 사찰일수록 예약마감이 빠르다. 바다와 숲길을 접하면서 묵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측의 설명이다.

실제 인제 백담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설악산 숲속에서 진행하는 호흡명상이 올여름 템플스테이 동참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백담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백거 스님은 "스님과 함께 포행 후 숲에 앉아 호흡명상을 하면 무더위로 쌓인 피로가 풀린다는 참가자들의 후기가 대다수"라면서 "특히 설악산 침엽수의 피톤치드를 접하고 감동, 재참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름휴가지로 템플스테이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 사찰에서는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증심사는 템플스테이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참가자는 전통한옥 숙소 1동 및 텐트 1동에서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저녁 영화 상영, 무등산 숲 체험과 함께 옥수수와 감자 등을 화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간식 제공 등 캠핑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한국문화연수원도 올여름 한시적으로 캠핑 감성 가득한 '온가족 캠핑스테이'를 운영한다. 텐트와 함께 고구마 등을 구워먹을 수 있는 캠핑존 그릴이 준비됐으며 '불멍' 시간도 마련됐다.

해발 800m 청정 지대에 위치한 영월 만경산사는 고지대의 자연을 한껏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도량 가득한 200여 종 이상의 야생화와 산약초를 직접 캐고 맛보며 자연 속에서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 에너지를 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들 템플스테이의 공통된 특징은 오롯이 '휴식'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찰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가득한 체험형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었다면 올해는 산사의 호젓함을 명상과 포행으로 여유롭게 즐기면서 몸과 마음에 안정을 찾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했다.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 주목
RM 즐긴 '휴식형' 인기 만점
"심 필요시 마음의 휴식 공간"

최근에는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여름 휴가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택해 화제를 모았다. RM은 7월 25~27일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 머물며 산내 암자인 중암과 은선암 등을 순례하고 시원한 계곡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RM은 템플스테이 후 자신의 SNS에 한여름 망중한의 여정이 담긴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아름다운 산사에서 만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는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라며 "자연에서 보내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도 마음도 시원하고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 템플스테이 일정확인 및 예약은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02)2031-2000



부처님 품안서 천진불 여름나기

천진불의 여름한마당이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7월 24일 개최한 '풀장이 있는 여름불교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스님과 불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3년만에 문을 연 여름불교학교를 만끽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3년 만에 대규모 MZ포교 행사 열린다

대불련 영부디스트 · 불교스카우트 숲캠퍼리 등 눈길

여름방학 맞아 캠프 등 개최
코로나 기간, 비대면 중심서
대면 중심 포교 활성화 계기

코로나 기간 닫혀있던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행사가 여름을 맞아 속속 열리고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석주)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양산 통도사 및 청도 운문사 일대에서 '제13회 KBUF Young Buddist Camp'를 개최한다. '다시 만난 우리, 함께 하는 청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코로나 기간 규제됐던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약 3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된다.

대면행사인만큼 대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사찰순례, 청춘강연, 법등별 시간, 미션, 마음나누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도 8월 5일부터 7일까지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원에서 제15회 한국잼버리 화랑서브캠프 및 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캠퍼리를 개최한다.

캠퍼리는 캠핑과 잼버리의 합성어로 전국 불자 청소년들이 신라 화랑도처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캠퍼리에서는 아침예불, 명상, 108배, 단주만들기, 태극부채꾸미기, 숲밧줄놀이, 짚라인, 탐험하이킹,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불교계 대표 어린이청소년축제도 대규모 대면행사로 준비 중이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9월 17일 동국대 일원에서 제14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한다.

'전통 속에 피어나는 청소년 꿈마당'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상월선원 안거체험,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체험, 진학 · 진로 엑스포,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불교교리경시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전통문화 공모전, K-Dance 경연대회,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어울림마당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측은 "최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와 달리 올해는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안거와 순례 등 불교수행 체험을 통해 불교정신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8월 2일 '2022세계청소년명상페스티벌'을 개막했다. 8월 4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명상페스티벌은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200여 전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해 사찰에서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청소년명상페스티벌에서는 불자 선수인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선수의 '몰입의 습관' 강연을 비롯해 tvN '어쩌다 어른' 출연자인 김경일 교수의 심리 강연, 청소년을 위한 6가지 명상 체험 등이 진행됐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지현)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국대 WISE캠퍼스와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 일원에서 '지혜, 자비, 정진으로 가치 있는 꿈찾기'라는 주제로 25회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했다. 3년 만에 열린 전국연합캠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파라미타 회원 500여 명과 지도교사들이 함께했다.

최근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포교행사는 그동안 정체된 MZ포교의 활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조석주 대불련 회장은 "코로나 기간 대학교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여름캠프를 맞아 법우들의 신청이 역대급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코로나 기간 법회 중단과 등으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침체된 미래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사찰을 비롯한 각 현장에서의 관심과 연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여름휴가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정부개입으로 미완의 결실…온전한 화해 과제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② 출범 과정 ③ 출범 이후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끝)**

태고종 창종으로 반쪽에 그쳐
온전한 통합은 불가능한 지향
미완은 또다른 결실로 이어져

각기 다른 정체성 토대로 발전
선암사 등 분쟁 잔여물은 여전
현대 한국불교가 해결할 숙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62년 출범한 통합종단 조계종은 미완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구 · 대처간 분쟁을 넘어서는 온전한 통합은 결국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처승 측을 주축으로 한 태고종의 분리와 창종으로 온전한 통합에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조계종과 태고종이 각각의 정체성으로 한국불교를 이끄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태고종 창종은 "불교가 기나긴 내부 분쟁을 종식하고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계기"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수년간 지속된 분쟁은 각종 사회적 문제와 종교적 위상 실추 등 악순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태고종의 창종으로 인한 결별은 분쟁의 종식으로서 의미가 더 컸던 셈이다.

실제로 1970년 5월 8일 문화공보부가 태고종 등록을 마침내 인정하면서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태고종 창종을 보도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모든 언론들이 '분쟁의 종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지속돼 온 비구 · 대처 갈등이 세간의 관심사였음을 드러낸다.

동아일보는 5월 12일 기사에서 "문공부는 태고종 등록이 결코 분종이 아닌 새 종단의 창종이기에, 불교 분쟁은 일단락 됐다는 견해"라며 "16년간 끌어본 불교 분쟁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태고종이 과거의 모든 분쟁과 인연을 끊고 새 출발해 건실한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연말 문화계 결산기사에 태고종 창종을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꼽으며 "한국불교의 고질이 된 비구 · 대처 간 이전투구가 태고종 창종으로 매듭을 지었다"며 "그럼에도 정부에 의한 또다른 개입의 결과라는 점에서 불씨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의한 또다른 개입의 결과'는 태고종이 정식종단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를 일컫는다. 당시 문공부가 태고종의 종단등록을 수차례 반려한 이유는 조계종의 반대 그리고 분규사찰들로 인한 것이다. 태고종이 정식종단이 될 경우, 당시 대처승측이 점유하고 있던 조계종 사찰들이 태고종 소속이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태고종은 '분규사찰들과 무관하며 이 사찰들을 귀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5월 8일 정식종단으로 인정받았다.

사실 온전한 통합종단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지향점이었다. 불교계 내부적으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문제로 확대된 비구 · 대처 분쟁의 반강제적 종식을 위해 정부가 고안한 정책에 의한 합치였기 때문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및 1970년 태고종 창종을 보도한 당시 신문 기사들. 출처=한국불교 100년사

이후 두 종단은 오히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조계종은 같은 해 10월 사상초유 규모로 '세계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10여개 국가의 불교인들이 '세계불교연합'을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조계종은 빠르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동시에 교세를 크게 확장했다. 5년만에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부지에 불교회관을 건립했는데, 당시 가장 큰 현대식 건물로 손꼽힐 정도였다.

태고종 또한 하나의 종단으로 세간의 인정을 받았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고종은 창종 후 종단 내부 정비와 확충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종단(大宗團)의 면모를 갖췄다. 특히 조선일보는 "태고종이 기본방침으로 '평등과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 협동해 사회정화에 봉사한다'고 천명한 것은 20년 가까이 끌어온 비구 · 대처 분쟁으로부터 불교계가 각성한 느낌"이라며 "두 종단이 이제는 싸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에 나서달라는 것이 재야불교인들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평했다.

어찌보면 태고종은 온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덕에 이뤄낸 또다른 결실이다.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종단이 각기 다른 길을 통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종단 미완의 결실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순천 선암사 소유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비구 · 대처간 갈등 봉합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의 반강제적 통합은 분쟁의 표면적인 종식은 이뤄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의 잔여물은 여전히 남았다. 통합종단 조계종 출범과정에서 활용된 불교재산관리법 또한 여러 형태로 변화하며 사찰을 옭아매는 족쇄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곧 과거에 비추어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한국불교의 과제가 아닐까.

"첫 비구니 어산어장 탄생, 불교의례 발전으로"

전국비구니회, 7월27일
동희 스님 지정 고불식


전국비구니회는 7월 27일 '조계종 초대 비구니어산어장 동희 스님 고불식'을 봉행했다.

동희 스님이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어산어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비구니회가 이를 부처님전에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비구니 어산어장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전통불교 의례의 지속적인 발전을 발원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27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조계종 초대 비구니어산어장 동희 스님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전국비구니회 상용염불교구사 동환 스님의 명종 · 법고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약력 소개(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동희 스님과 진관사수륙재보전회 어산회의 '삼보전에 올리는 공양무', 회장 본각 스님의 고불 등으로 이어졌다.

본각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비구니 어산어장 지정은 비구니계의 영광인 동시에 비구니의 위상을 현창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동희 스님의 비구니 어산어장 지정에 6천여 전국비구니 회원들이 수희동참하며 이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스님들과 한국불교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여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희 스님은 "어산어장 지정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다. 종단과 전국비구니회, 많은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후학들에게 회향하겠다. 평생 걸어온 이 길을 이제 후학들을 위해 더 열심히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동희 스님의 어산어장 지정은 우리 비구니승가 모두의 성과이자 공덕"이라며 "수륙재는 한마디로 무량공덕의 법석이라 한다. 진관사는 동희 스님의 어산어장 지정을 계기로 향후 전통불교를 계승하고 발전시키 위한 바라지에 가일층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불식에서 동희 스님과 진관사는 전국비구니회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윤 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탄원

종지협, 정치 · 경제인 사면 요청
"위기극복 · 국민화합 이뤄지길"

7대 종단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원행, 이하 종지협)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대화합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종지협은 7월 26일 '국민대화합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길 희망한다'는 제하의 탄원서를 발표했다.

종지협은 탄원서를 통해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국민 모두의 행복과 공동선 추구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검토되고 있는 8 · 15 특별대사면 조치 계획을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적극 지지하는 바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난 극복이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던 분들이 다시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지협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과 함께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체제 가동

전국비구니회, 7월 27일 회의서
회칙에 근거한 첫위원회 출범해

올 10월 13일 예정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비구니 종회의원 10석에 출마할 후보를 전국비구니회 내부규정에 근거해 선출 및 추천함으로써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눈길을 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27일 법룡사에서 제 1차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칙에 근거한 첫 선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됐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에 따른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구니 종회의원으로서 여러 종무정책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는 회의결과 회장 본각 스님을 선출위원장으로 추대한데 이어, 간사 소임에 총무부장 현진 스님을 선임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 23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이며,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 2일 진행한다. 선거인단은 9월 5일 확정되며 선거일은 9월 15일 오후 1시다.

송지희 기자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문화재→유산으로…비지정 유산 보존 박차”

최응천 문화재청장, 7월 27일 첫 기자간담회

국가유산법 제정, 관리 체재 변화
사각지대 비지정 유산 보존 추진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 계획
“흥천사 동종 등 환지본처 사안은 원칙적 동의…보존 · 활용 우선돼야”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이 7월 27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보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비지정 유 ·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7월 27일 한국의 집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문화재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최 청장이 밝힌 정부의 문화재 정책 방향은 △국가유산 체재 전면 전환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이다.

먼저, 최 청장은 “정책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0년 동안 유지돼 온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 ·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을 제정하고 문화재 정책 기반 확장을 추진한다. ‘국가유산기본법’에는 최근 마련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편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발표한 결의문을 바탕으로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문화재보호법’ 대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 청장은 사라져가는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비지정문화재와 미래 유산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계획을 내놨다. 2024년까지 약 6만여 건에 달하는 전국의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목록유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지자체를 통한 발굴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무형유산은 3년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지자체에 문화재 전문인력을 의무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 청장은 “현재 전국에 지정 · 등록된 문화재는 약 1만 4600여 건이다. 이 중 77% 이상을 문화재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개소에만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재청은 지역 중심, 현장 중심의 보존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의무배치를 입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추세에 맞는 세계유산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이는 최근 김포 장릉 아파트 갈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여진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유네스코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법상에는 동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하여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문화재청은 흥천사 동종, 보원사지 고려철불 등 지역 사찰과 지자체 등이 요구하는 환지본처 사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순호 문화재청 보존국장은 “문화재가 본래 자리에 있는 것이 문화재의 역사적 특성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문화재의 보존 상태 등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당 단체가 보존 관리가 가능한지,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살피며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센터 7월 26일 게재
1년 후 세계유산에 등재 가능
“선종 문화 번영 · 확산 증거”


양주 회암사지 전경.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 발짝 다가섰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7월 20일자로 ‘양주 회암사지 유적(Archaeological Remains at the Hoeamsa Temple Site in Yangju City)’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등재됐으며, 세계유산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7월 26일 최종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총 13건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는 제도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세계유산 등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70여 동의 건물지가 확인된 중심사역과, 부도 · 석등 · 비석 등 고승들의 기념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잠정목록 신청서를 통해 양주 회암사지가 14세기 동아시아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적 증거이자, 불교 선종의 수행 전통과 사원의 공간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로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協, ‘선암사 판결’ 규탄

7월26일 회의서 성명 채택
“사법부가 불교 혼란 초래”

순천 선암사를 두고 지속되는 조계종 · 태고종 간 소유권 분쟁에서 최근 법원이 태고종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7월 2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75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이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성명에서 “광주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불교를 배척하면서 민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님들은 “사법부는 조계종 스님들이 거주하지 않기에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거로 선암사 사건을 들여다 보았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불교의 자주적 교단 건립운동과 왜색불교 척결운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유일무이하게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조계종의 실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이 재산관리인 순천시장을 해임하고 선암사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는 정부와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법부만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지 스님들은 “사법부가 내세운 황당한 실체 논거는 곧 조계종이 소유권 주장을 위해 실효적 지배에 나서라는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불교계를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의료위기’ 스리랑카에 1억 5천여만원 의약품 지원

마하위하라 · (사)인간의대지
7월 22일 대사관서 전달식해



국가부도 사태 이후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스리랑카를 위해, 한국 불교계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에 나섰다. 특히 이번 지원은 한국 내 스리랑카사찰인 마하위하라 사원을 중심으로 공익단체 (사)인간의대지, 주한스리랑카대사관, 한국 불자들의 자비온정이 함께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마라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과 (사)인간의대지(이사장 곽병태)는 7월 22일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서 ‘필수의약품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의약품은 총 1억5000여만 원 상당 규모로, 스리랑카 국적기를 통해 7월 20일 1차, 27일 최종 발송이 완료됐다.

이번 의약품 지원은 마하위하라가 지난 6월 진행한 ‘스리랑카 국민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 캠페인’에 따른 결실이다. 캠페인은 국가부도 이후 의약품 부재로 의료공백이 심각한 스리랑카 본국 국민들을 위한 모금운동으로 진행됐으며, 불교언론 보도를 통해 십시일반 온정이 모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향운사 주지 지상 스님이 (사)인간의대지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대규모 의약품 후원의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에 전달된 의약품은 노령 · 기저질환자의 생명연장, 갑작스런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 긴급처치를 위해 스리랑카 보건국이 요청한 필수품목으로 구성됐다. 긴급 지원인 만큼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측은 본국 복지부와 국적항공회사 등 관계부처와의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의약품들이 즉각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비트리 주한스리랑카 대사는 “담마끼띠 스님과 인간의대지, 한국 불자와 국민 모두의 도움에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가장 행복한 선물이라고 하셨다. 이번 기부가 본국 국민들에게 큰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 간 돈독한 교류 · 협력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인간의대지 심복자 상임이사는 “이번에 전달된 필수의약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짧고 긴급히 전달돼야 하는 품목들도 포함돼 우려했지만,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적적일 만큼 빠르게 발송절차가 이뤄졌다”며 “현지에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돼 도움이 됐음이 확인되면 2차, 3차 추가지원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마끼띠 스님은 “스리랑카 국민들의 생명을 자비로 품기 위해 한국 불자님들과 불교언론, 향운사 스님과 인간의대지, 대사관, 항공사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나서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본국에 전달된 의약품들이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마하위하라 사원이 진행한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 캠페인을 통해 모연된 금액은 7월 21일 기준 800여만 원 상당이다. 인간의대지가 의약품을 후원하고 발송은 스리랑카 국적기를 통하면서, 모연금은 국내 화물이송 비용과 혼란지역의 쌀 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석사 불상, 국제적 관행 따라 반환돼야”

국회 문화유산포럼, 7월 27일 학술집담회

국내외 법조인들 발제통해
반환소송 법리적 해석제시
부석사 반환에는 한목소리
8월 17일 항소심에 주목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도난돼 국내 반입된 서산 부석사 불상(금동관음보살상)의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 심리가 8월 17일 예정된 가운데, 국제법과 민법의 시각에서 불상의 취득권 여부를 확인하는 학술집담회가 열렸다.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은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의 쟁점사항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부석사 불상 반환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된다.

제21대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은 7월 27일 ‘국제법과 민법으로 보는 서산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을 주제로 국제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부석사 불상 반환소송은 수년째 이어진 뜨거운 감자다. 불상의 원 소장처인 부석사가 “해당 불상은 애초 고려말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다”고 주장하며, 불상을 압수해 보관 중인 한국정부(대전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석사의 주장을 인정해 불상의 인도를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피고측인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한데 이어, 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부석사 불상 봉안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 6월 항소심 심리에 관음사가 피고인 검찰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부석사 불상 반환소송은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관음사 측이 변론을 통해 불상의 정당한 소유 및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관음사를 창립한 주체가 왜구의 한 집단인 코노씨라는 점에서 약탈의 주체인 관음사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부석사 불상을 승계한 법인 관음사는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1970)’ 및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1995)’을 들어 “도난문화재는 원소유국으로 반환하는 국제법적 경향을 참작해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임 前 주튀니지대사도 “이 사건은 도난 불상을 반환받으려는 일본측과 과거 약탈된 불상을 회복하려는 한국간 소송이 아니라, 불상을 원봉안처에 봉안하고자 하는 부석사와 법원 판결에 대비해 도난불상을 몰수해 억류하고 있는 한국정부간의 소송이 됐다”며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서 소송의 진정한 목적인 부석사 불상의 제자리 봉안 문제는 잊혀지고 불상 또한 수장고에 방치된 채 퇴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에 대해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벗어나 국제관행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불상 반환소송의 항소심 심리는 8월 17일 오후 2시 열린다.



7월 17일 한마음선원 대중들이 승탑을 제막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혜원 스님 5주기 다례재 봉행

7월 17일 안양본원서…승탑 제막식도 함께 이뤄져

한마음선원 본원 前주지 연자당 혜원 스님의 입적 5주기를 맞아 7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이날 추모다례재는 각령전 승단 헌다와 헌향, 헌화를 시작으로 신도 임원단 헌화, 입정, 합창단 음성공양, 이사장 스님 인사로 이어졌다.

다례재와 함께 이날은 대행선사 비구니 상좌들의 승탑 제막식이 함께 봉행되었다. 안양 본원 내에 자리한 승탑에는 연자당 혜원 스님과 함께 여덟분의 비구니 상좌스님들의 위패가 봉안되었다.

대중승탑은 대행 스님의 유훈에 따른 것으로 승탑제막식에서는 반야심경 봉독과 함께 제막천 제거, 위패 봉안, 선법가 공양 등이 이어졌다.

한마음선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례재를 중계했으며, 다례재에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은 각자 가정에 혜원 스님을 그리워하며 추모의 뜻을 함께 전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큰스님께서 저희 제자들을 끝없이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크신 사랑에 가슴이 벅차고 목이 메인다. 그 사랑을 새기며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하였다.

노덕현 기자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대국민 공모전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하는 대국민 공모전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출품작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고 템플스테이에 대한 내외국인 인식 확장에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와 성인(대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3인 이내로 구성된 팀이면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와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수상자로 총 49명을 선정하며, 상금 규모는 총 3800만 원이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주년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이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서울노인센터서 장기기증 캠페인

7월 21일, 센터 직원들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펼쳐



장기기증에 동참한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손하트를 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7월 2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오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 웰다잉을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준비된 임종을 맞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이자,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평가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만큼 상담과 프로그램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도 포함돼 있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함상원 부장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면서 삶과 죽음이 동시 이뤄지는 삶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후 장기기증이 생명이 절실한 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동참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직원들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불사에 동참해주신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 및 이용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1년부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기관에 있는 복지관을 찾아 릴레이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캠페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등록을 통해 이식 대기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휴전서 평화로…평화 만드는 건 우리”

민추본, 7월 23일 임진각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정전 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 전쟁을 끝내고 세계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평화운동을 펼쳐 나갑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문화제를 개최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를 비롯해 7대 종교와 전국 370여 개 시민단체, 70여 개 국제파트너 단체가 모인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은 7월 23일 파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를 개최했다.

문화제에서는 가수 이은미, 래스피스, 신나는 섬의 음악 공연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인사들의 발언, 대형 현수막 펼치기 퍼포먼스, 임진각 철책에 ‘평화의 리본 달리’ 행동, 평화선언 서명 및 평화부스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민추본 회원이자 고려대 병원법당 지도법사인 지현 스님은 ‘평화의 약속’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임은호 기자



한반도 종전 평화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템플스테이 20주년 대국민 공모전

2022.08.01 ~ 09.12
(결과 발표 : 2022.09.30)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

참가대상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공모주제
템플스테이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 그리고 앞으로 템플스테이와 맞이할 순간을 그리다

참가부문
영상, 사진, 그림, 수필(총 4개 부문)

참가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20thcontest@templestay.com

- 영상: 1) FHD 이상의 해상도(최소 1208 x 720 px 이상) 2) 숏츠 영상 포맷 혹은 최대 3분 이내의 영상물 3) avi, mp4 포맷의 파일 형태로 제출
- 사진: 1) 본인이 직접 촬영한 JPG 형태의 이미지 파일 2) 이미지 합성은 불가
- 수필: 1) 템플스테이를 소재로 한 자유로운 형태의 글 2) 한글파일 형태로 제출
- 그림: 1) 템플스테이를 소재로 한 자유로운 형태의 그림 2) 4절지(11세~13세) 혹은 8절지(5세~10세) 응모 3) JPG, PNG, PDF 파일(스캔) 응모 * 상위 수상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필요

시상내역 * 표기 : 인원수(인 당 상금)

공모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영상(성인)		1명(300만원)	2명(100만원)	2명(50만원)	5명(30만원)
사진(성인)		1명(200만원)	2명(50만원)	2명(30만원)	5명(20만원)
그림	어린이(5세~10세)	1명(50만원)	2명(20만원)	2명(체험권)	5명(기념품)
그림	어린이(11세~13세)	1명(50만원)	2명(20만원)	2명(체험권)	5명(기념품)
수필	청소년(14세~19세)	1명(50만원)	2명(30만원)	2명(20만원)	5명(기념품)
수필	성인	1명(100만원)	2명(50만원)	2명(30만원)	5명(기념품)

문의사항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 운영사무국 : 02-362-3332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

참가대상 * 출품작 수 제한 없음.
성인(대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공모주제
친환경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불교문화유산

참가부문
일러스트, 캐릭터(2D, 3D 디자인)

참가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digitalcontest@templestay.com

- 일러스트, 캐릭터 (2D, 3D): JPG, PNG, PDF 파일 응모 * 상위 수상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필요

시상내역 * 표기 : 인원수(인 당 상금)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수량(작품)	1	2	4	6	10
상금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기념품

문의사항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 운영사무국 : 02-853-4323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 /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

※ 출품 작품은 **저작권, 초상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간주 사항 발견된 경우 수상을 취소**함

템플스테이 ·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일제 반출 고려철불, 보원사지로 돌려주세요”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③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보원사지 철불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7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이하 보원사지 철불)’을 참배했다. ‘보원사지 철불’을 참배한 스님과 신도들은 철불이 본래 자리인 보원사로 환지본처하기를 합장하고 일심(一心)으로 기원했다.

철불, 융성했던 보원사 일원 확인 증거

스님과 신도들이 보원사지 철불의 환수를 기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보원사와 철불 조성의 역사를 살펴보자.

보원사는 신라 하대와 고려 초 크게 번성한 사찰로, 화엄종의 중심 사찰이었다. 이 사찰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법인국사 탄문(900~975)이다. 탄문의 행적은 보원사지에 남아 있는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를 보면 알 수 있다.

탄문은 세납 56세에 보원사와 인연을 맺었고, 철불을 조성한다. 비석 기록에 의하면 탄문은 955년(광종 6)에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금상삼존을 주조했다(鑄金像之三尊)”고 기록했다. ‘주금(鑄金)’은 ‘쇠를 주조했다’는 의미이며 ‘금상(金像)’은 ‘금박을 입혔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철불 3구를 주성하고 금박을 입혔다’는 것이다.

철불은 금동불상보다는 제작 공정이 훨씬 까다롭지만,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조성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철불은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지방 호족들의 대두와 구리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당시 호족들은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철을 항상 비축했고, 금동불보다 적은 비용으로 대형 불상을 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재료였다.

보원사지 철불도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 지방 호족인 충주 유씨가 후원했다. 충주 유씨는 광종의 부인인 신명왕후의 가문이기도 하다. 당시 충주 유씨는 철 생산과 유통으로 부를 축적했고, 남한강 일대의 대표 호족으로 성장했다. 실제 남한강 일원의 철조 불상들은 충주 유씨의 후원들이 많다. 중국과 일본의 철불 조성 시기가 각각 12, 13세기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서산 일원의 철기 제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보원사지 철불인 것이다.

일제의 철불 강제 이운 작전

융성했던 보원사가 언제 쇠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1682년에 제작된 〈동여고비〉에 보원사가 표기된 기록으로 봐서는 조선 후기까지는 법맥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진다.

서산 보원사지가 기록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다. 1916년부터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반도 일대의 고적 조사를 진행했고, 서산 보원사지에 대한 조사도 이때 이뤄졌다. 일제는 조사를 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보원사지 철불의 안치 상황에 대한 내용이 흥미롭다.

1916년 작성된 〈서산 철불 조사 보고〉에는 “불상은 전포 가운데에 있다. 소옥(小屋)에 안치돼 있으며 문은 쇄약(鎖鑰, 자물쇠)으로 잠궈 부락민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불체는 좌상으로 정교 치밀해 보기 드문 일품이다”라고 기록됐다. 보원사는 쇠락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별도의 봉안당을 만들어서 불상을 모시고 예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를 마친 일제는 비석과 승탑 등은 놔두고 옮길 수 있는 철불을 이운했다. 이운 시기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휘보(朝鮮彙報, 1919)〉와 〈박물관진열품도감(博物館陣列品圖鑒, 1920)〉 등을 종합하면 보원사지 철불은 1918년 서울로 이운됐다.

높이 2.57m에 무게가 어림잡아 수 톤에 이를 불상을 이운시키는 것은 군대 작전을 방불케 했다. 본래는 해로를 통해 이운하려 했으나 운송비용을 이유로 육로를 통해 불상을 이운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1928년 간행된 〈조선불교(朝鮮佛教)〉 제45호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기록을 정리하면 서산 가야산에서 천안역까지 약 20리 운반하는 데 하루 인부 40~50명, 소달구지 대여섯 대가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기도 했다. 천안역까지 운반하는 데만 7~8일이 걸렸다고 한다. 문제는 천안역에 도착한 철불을 열차에 옮기는 일이었다. 기록에는 “‘불상을 어떤 방식으로 기차에 옮길 것인가’가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켰다고 한다. 나중에 들으니 기차로 옮겨 싣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술됐다. 이후 철불은 경복궁에 전시됐고, 〈조선불교〉 제45호는 당시의 모습을 “그 장대함과 용안의 풍만함은 원내에 이에 견줄 만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 초 탄문 스님, 철불 조성 추정
보원사 쇠락 후 小垈에 안치 · 보존돼
일제가 강제 징발해 경복궁에서 전시

2020년 환수위 구성…환지본처 추진
서산시 등 보원사지 정비하며 ‘공조’
國博 “관리시설 건립되면 대여 검토”
성일종 의원 “출토지 환수 법안 준비”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 높이가 2.57m에 달하는 거대한 철불이다. 1918년 일제가 강제로 징집해 서울로 이운해 경복궁에 전시했다.

일련의 기록들을 정리하면 쇠락한 사찰의 철불을 인근 주민들이 작은 봉안당을 지어 모시고 있었지만, 이를 조사한 일제는 강제로 불상을 서울로 이운해 전시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찰 · 지자체 “철불 환수” 한목소리

보원사지 철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상설 전시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보원사지 철불을 환수하기 위한 운동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이다.

보원사는 지난 2004년 12월 수덕사의 말사로 등록했고, 개원 이래 꾸준히 환수 운동을 추진해왔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려철불 환수 캠페인을 펼쳤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격월로 고려철불 친견법회를 신도 대상으로 봉행했다. 2020년 6월에는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으로 한 환수위원회를 구성해 환수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원사는 2020년 4월 광화문1번가에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환지본처’를 정책 제안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철조여래좌상이 출토된 보원사 현지에 보존 및 관리 시설을 갖춘 박물관 등이 건립되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관리 규정’에 따라 요청 시 실사와 협의를 통해 대여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보원사지 철불의 환수에는 충남도, 서산시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현재 3단계에 걸친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인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조성은 완료됐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인 잔디와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마무리 단계다. 3단계 사업에는 100평 가량의 방문자센터 건립이 이뤄진다.

보원사지 철불의 환수를 위해서는 방문자센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수장고 등 보존관리 시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청 관계자는 “수장고나 보존시설, 전시공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사적지 종합정비 일체는 문화재청 소관이다. 두 부처가 나눠진 상황이라서 방문자센터에 보존관리 및 전시시설을 추가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서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는 이뤄지지는 않았다. 3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관련 시설 추가 부분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산 · 태안)도 보원사지 보존 정비와 철불 환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특히 성일종 의원은 출토 · 반출된 문화재들을 환지본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방문자센터 규모를 기존 100평에서 400평으로 확장해 철불과 보원사지 문화재의 수장과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 이는 문화재청의 동의를 얻는 상황이며, 협조해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문화재들이 출토 유적의 본적지로 가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준비 ·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원사와 본사인 수덕사도 보원사지 철불 환지본처에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새로 개관 예정인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보원사지 철불 대여 전시를 추진 중에 있다.

보원사 주지 정경 스님은 “박물관에 있으면 하나의 소장품에 불과하지만 서산에서는 지역의 철기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보원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성보”라며 “보원사지 철불이 제자리를 찾아 그 가치를 되살렸으면 한다. 이는 지역의 문화 향유권과 인프라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원사지 철불 환지본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본사인 수덕사와 충남도, 서산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새로 개관할 수덕사 성보박물관의 개관 특별전에 보원사지 철불의 대여 전시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철불 환지본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수덕사)은 “충남도와 서산시가 함께 환수 문화재를 조사하고 환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수덕사 차원에서도 보원사지 철불과 부석사 관음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연수 인증교육 [비대면 ZOOM]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 특 징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부동산 융합풍수학과
■ 개 강 : 2022년 9월 19일(6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 교육비 : 월 7만원
여해스님 (부산이산학회 회장,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대한불교 영산법화종 영산법화사
2022년 하반기 종도모집

재단법인 영산법화회는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으로 법화조사님의 개창 66주년을 맞이하고 동시에 장흥도량에 큰 불사를 앞두고 있어 법화경에 인연 있는 종도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화경 전문 도량으로 현재 공찰이 미국 LA 외 전국19개 도량이며, 기본자산이 일천억이 넘은 법화 제일 도량입니다. 스님 복지 우선으로 4대 보험, 각종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이며 교단에 법주 이신 행학 큰스님을 위주로 법화홍통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법화도서관 및 법화노인요양원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화홍통(法華弘通)으로 꿈과 희망을 찾으시려는 재능 있는 많은 인재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꿈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나무묘법연화경

■ 모집대상 : 출가승려, 행자, 법화경 연구자, 사찰등록 하실 분
■ 모집인원 : 00명
■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사진 3매
법당내부 · 외부 사진(사찰등록하실 분), 타종단 법랍인증(승려증사본)
■ 출가행자 모집 : 18세 이상
■ 분 담 금 : 상담 후
■ 영산법화사 각 도량 소개 : 영산법화사 홈피(http://ysbuphwasa.org) 참조
■ 디지털법화도서관 : 법화경 관련 서적 50여종
■ 문의전화 : 02)762-4922 (서울 종로구 동숭길116 영산법화사 본사)

※ 본 재단은 개인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조계종부산聯,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회원사찰 · 전국불자 1533명 수계
5대 회장 원허 스님 취임식 개최
보리암서 채수한 관정수로 관정
"계, 지키고 베풀기 위해 받는 것"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부산연합회가 7월 2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7월 2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혜원정사, 대광명사, 안국선원, 흥법사, 관음사 등 29개 회원사찰 및 전국의 불자 1533명이 계를 받았다.

이날 수계법회에 앞서서는 조계종부산연합회(이하 부산연합회) 제5대 회장으로 재임한 원허 스님의 취임식도 마련됐다. 취임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축사로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연합회가 2018년부터 매년 봉행하고 있는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는 수계의식을 통해 불자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의 가치를 다시 새김으로써 신심을 높이고 자신과 주변이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큰 법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계식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수불 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등단해 수계를 증명했으며 갈마아사리는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지현 스님이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심산 스님, 원허 스님, 목종 스님, 혜성 스님, 만초 스님, 원순 스님, 하림 스님, 지일 스님이 맡았다.

수계법회는 도량 결계의식을 시작으로, 태공 스님이 인례, 학산 스님의 집전, 정행 스님이 고두를 맡고, 대종 5타, 거향찬, 삼보를 예경하고 모시는 청정, 삼사 칠증사를 모시는 청사,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명하는 개도가 진행됐다. 참회에 이어 부산연합회 사무국 스님들이 직접 남해 보리암에서 채수한 관정수로 관정의식을 진행했다. 동참대중 가운데는 말기 암환자와 가족 3대가 함께 수계를 받는 가족수계자도 있어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관정의식 후 수삼귀의, 선계상, 오계선계상, 계백작증이 이어졌으며, 발원과 회향, 수계첩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후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의 법어, 갈마아사리 수진 스님과 교수아사리 지현 스님의 격려사가 진행됐으며, 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의 인사말과 회향게, 사홍서원으로 법석이 마무리 됐다.

관정 이후 참여 대중을 대신해 서보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과 박극제, 김대곤, 이덕순 신도와 김소례 관음회 대표, 정분남 삼보회 대표, 양준동 BBS 법소리 대표, 김선조 부산시청공무원불자회 회장, 신용필 부산경찰청불자회 총무가 수계증을 받았다.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은 "계는 지키기 위해 받는 것이며 동시에 더 큰 공덕과 기쁨을 위해서는 나누고 베풀기 위해 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여기 계신 불자들이 널리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오늘 회장으로 취임한 원허 스님께 축하의 뜻을 전하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원허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계를 받는 여러분들이 한국불교의 주인공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바른 제자로 수계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 2022년 총회 개최



7월 26일, '새로운 도약 마련'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 이하 종정협의회)가 7월 26일 경남 양산 불광사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활동의 재개를 알리고 제14대 신임 회장에 추대된 월인 스님의 원력과 계획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실강화와 인재불사에 매진하고 화합하는 종단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월인 스님은 "제가 9대와 10대 회장직을 맡았었는데 또 다시 14대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종정협의회가 크게 위축되었다. 다시 되살리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며 "앞으로 종단협의회는 어려움은 서로 나누고 도와주며 종단 간의 화목을 다져 내실을 쌓아야 한다. 또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위한 군부대 포교에 원력을 쏟을 것이다. 종단협의회가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종정협의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회원 스님들의 입적과 급격한 회원 감소로 재정난을 겪었다. 월인 스님의 회장 추대 후 총회를 계기로 회원을 다시 모집한 결과 74개 종단이 회원으로 가입해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 종정협의회 총회는 신임 회장 인사말 후 재정확보 방안, 향후 대외사업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총회에는 회장 월인 스님(대한불교승가종), 수석부회장 청봉 스님(대원불교 조계종) 외 전체 회원 종단 74개 중 44개 종단의 종정 스님들이 참석했다. 종정협의회에서는 10월경 부산에서 14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문현노인복지관 사랑의 손길펴기



부산 남구 문수복지재단 문현노인복지관(관장 변정희)이 7월 22일 hy 한국야쿠르트(대표이사 김병진)와 함께하는 '사랑의 손길펴기 후원전달식'을 관내에서 진행했다.

사랑의 손길펴기 후원전달식은 hy 한국야쿠르트와 함께하며, 문현노인복지관 임직원이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는 사회봉사단의 활동이다. 복지관 임직원은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을 실천하고 있다.

문현복지관은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밀키트 조리식(삼계탕, 김치, 미역국, 육개장)을 제공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전달식을 기획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살예방 및 교통사고 방지 캠페인 재개

화엄승가회, 생명의 소중함 알려



화엄승가회가 7월 23일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자살예방 및 교통사고 방지 캠페인을 개최했다.

봉사하는 스님들의 모임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7월 23일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자살예방 및 교통사고 방지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총무 대각 스님 등 회원 스님들과 장준동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발우를 들고 한 줄로 서서 비좁은 시장 거리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스님들이 목탁소리에 맞춰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자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과 시민들은 합장을 하기도 했고 발우에 보시금을 전하기도 했다. 스님들의 뒤를 따르던 부산불교교육대학 재가 회원들은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전단지를 시민에게 나누어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전했다. 전단지에는 "작은 관심의 표현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살을 막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담았다.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보시금은 화엄승가회에서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로 회향할 예정이다.

회장 자인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겪는 수고로움은 언제나 기쁨이자 보람"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스님들이 사회봉사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15년 3월 창립됐다. 매년 자비연탄나눔 등 많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화엄승가회 소속 사찰은 지장선원, 여래정사, 길상사, 자비암, 보광사 등 28개 사찰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개교이후 1만 6000여 명의 졸업생과 1200여 명의 포교사 및 100여 명의 스님들을 배출한 전국 최초 불교대학이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부산, 생명존중 강좌 성료

7월 21일, 창립 16주년 기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7월 21일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부산생명나눔 창립 16주년을 기념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복춘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前 영남지부장이 '장기 · 인체조직 기증방법(뇌사자 판정 및 기증 진행과정)'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부산생명나눔은 강의 이후 수료식도 진행했으며, 수강자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설명하는 강의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지혜를 통해 참된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바른 지식으로 생명존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생명나눔실천 본부장 심산 스님과 이승표 부본부장, 조규율 부산시청 보건위생과장 등 주요 내빈과 흥법사, 대광명사, 원오사 등 각 후원 사찰의 스님과 불자,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생명나눔팀 포교사와 시민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금산사, 교구 소임자 선출제도 모색

전북불교 사부대중 2차 원탁회의서 7개 모둠 나눠 본사 주지 선출 등 토론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가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2차원탁회의를 개최했다.

7월 23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불교 백년대계 사부대중 원탁회의 2차 회의는 '소임자 선출 · 탁마 ·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라는 주제로 교구 소임자선출제도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전북불교백년대계 기획단장 평상 스님의 1차 원탁회의 결과 및 후속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평상 스님은 향후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계승을 위한 (가칭)생명평화포럼 추진, 연등축제를 지역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팀 운영, 수현사를 전북불교 혁신거점 도심형 사부대중 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산사는 그동안 주요 소임의 경우 선출과정 없이 정해왔다. 조실 월주 스님의 추천으로 교구장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등 교구의 주요 소임자가 정해지면서 산중총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을 유지해 왔다.

전북불교백년대계 정책기획단 산성스님은 소임자 선출제도에 대한 제안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불교공동체가 2700여 년 동안 유지해온 공화와 평등, 공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낼지를 고민해야 한다"


금산사와 태공문도회는 7월 23일 수현사에서 2차 원탁회의를 열고 주요소임자 선출방안을 모색했다.

며 "불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시대를 앞서가는 소임자 선출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소임자의 선출과정은 대결의 장이 아닌 탁마의 장, 화합의 장,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월주 스님 입적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가 경쟁과 다툼의 장이 아니라 문중 · 교구 화합의 장이 돼 전북불교의 미래를 향도할 인재를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종단적으로 모델이 되고, 세상에도 귀감이 될 선출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정책기획단은 소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아닌 선출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혼탁하고 폐단이 많은 선거라는 기존 제도뿐 아니라, 추첨,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제시했다.

7개 모둠으로 나뉘어 진행된 주제토론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선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한 번의 토론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승단 중심 의견과 함께 문중 · 지연 · 파벌 선거풍토 개선 등의 내용이 오갔다. 토론 결과 선거 승복 등에 의견이 모아졌다. 전체회의에서는 금산사 전통을 계승해 어른스님들이 추천하는 의견과 젊은 스님들에 대한 기회 제공 등이 제시됐다.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기획단과 관심 있는 대중이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대로된 선출제도를 17교구가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단장 평상 스님은 "소임자 선출제도를 결정하기 위해 태공문도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교구종회에서 논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교구 종도들에게 공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의 원탁회의는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 사부대중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 정책기획단장 평상 스님,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을 비롯한 20여 스님들과 30여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3차 원탁회의는 9월 17일 수현사에서 '전북불교 20년 후-전북불교의 혁신과 발전 방향' 을 주제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 포교 위한 새 콘텐츠 개발에 총력"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에 능해 스님

인천불교총연합회 제32대 회장에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자 인천 백운사 ·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인천불교총연합회는 7월 19일 미추홀구 숭의가든에서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장 선거' 를 열고 단독 출마한 능해 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능해 스님은 1975년 출가해 박서봉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하고, 안덕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능해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하고,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을 졸업한 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스님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용궁사 주지이자, 한국불교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과 인천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능해 스님은 취임과 함께 인천지역 불자 배가 운동과 지역 내 각 사암의 민원해결을 위한 창구 개설,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능해 스님은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화합하고 합신하는 불교 신행의 장을 펼치고, 다문화가족 불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능해 스님은 "여러 대덕 큰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인천 불교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자 포교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시대에 맞는 전법으로 선구자적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불교총연합회는 7월 27일 '국태민안 인천발전기원 대법회' 를 열고 인천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능해 스님은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천을 신바람나고 살기좋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염원드린다"며 "그러기 위해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천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이른바 '인천당' 으로 똘똘 뭉쳐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화엄사, 불교복식 연구에 나서다

7월 27일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


7월 27일 화엄사 박물관에서 열린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식 모습.

화엄사가 한국의 불교 복식연구를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7월 27일 화엄사박물관에서 창립특별전인 '華嚴四色(화엄사색)' 을 열고 본격적인 불교 복식 연구를 위한 '화엄불교복식연구소' 를 창립했다.

화엄불교복식연구소(소장 강선정)는 스님들의 법의(法衣)인 가사(袈裟)의 전통 복원과 현대적 발전을 연구하고, 승려복식과 신도복식 등 종교활동의 현장에 필요한 복식의제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진행해 나아간다. 또한 번과 복장낭 등 불교공예와 전통침선과 전통자수, 전통매듭에 대한 최고 장인들의 기술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덕문 스님은 특별전에 앞서 "화엄불교복식연구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어렵게 모신 구성원이고, 개개인으로 보면 대단히 유명한 한국 최고의 장인이다.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화엄사는 서산대사의 가사와 벽암 스님의 가사를 보관하고 있고, 수많은 큰스님과 수행자들의 천년도량이다. 앞으로 미래의 불교 복식을 포함해 같이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출범한 화엄불교복식연구소는 강선정 소장(화엄사성보박물관 부관장)을 비롯해 한복 명장 611호인 박춘화, 무형문화재 80호 윤정숙, 서울시무형문화재 제13호 안영순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교계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복식과 공예 분야의 전문가인 김봉숙, 서정아. 심지윤, 이경희, 이미현, 정미자. 김유미, 허윤 등이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출범을 기념해 진행한 창립특별전 '華嚴四色' 도 눈길을 끈다.

특히 벽암 스님 가사 재현과 송광사 기산 스님 장삼 재현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 복식과 불교공예품, 그리고 생활의복 등의 60여 작품이 10월 10일까지 화엄사박물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 삼봉사 '가족 위한 봉안당' 화제

숙박 및 개별공간 배정 힐링공간으로 활용가능

밀양 삼봉사 봉안당이 화제다. 밀양 삼랑진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삼봉사(주지 녹원) 봉안당은 2020년 10월 개원한 곳이다.

삼봉사 경내 스님 처소를 현대시설로 개조한 곳으로 유골함 900여 기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다. 삼봉사 봉안당은 고인 가족 모두를 배려한 고품격 추모관(반야궁, 적멸궁, 열반궁, 해탈궁)으로 개방형유리로 차단돼 시원한 전경과 채광 등을 자랑한다. 방충 관리를 비롯해 365일 고인의 영혼을 밝혀주는 개별 LED가 설치되어 있다.

또 추모객들을 위한 고즈넉한 추모공간으로 숙박이 가능한 차별성이 있다.


밀양 삼봉사 봉안당 전경. 개방형 유리로 구성돼 있다.

삼봉사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 밀양에 위치해 부산과 대구 등 4대 광역시 중심으로 1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삼랑진IC에서 10분 거리로 편하게 찾을 수 있다.

봉안당 혜택으로 설과 추석 등 명절의 무료 합동추모재, 영구안치, 진공유골함, 크리스탈 안치단 무료위패, 무료 반혼제 등이 있다.

삼봉사에는 보통 추석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몰린다. 조상묘 벌초 및 관리 등의 부담을 덜고, 생전 좋아하는 물품을 공양하여 제를 올릴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삼봉사 주지 녹원 스님은 "삼봉사 불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봉안당에 근무한다. 언제나 숙박 등이 가능하기에 추모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삼봉사에서 가족 간의 소통시간을 갖고 마음도 돌볼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이재윤 거사는 6세 자녀와 함께 삼봉사를 찾았다. 이 거사는 "삼봉사에 가면 3가지 복을 받는다고 해 처음 왔는데, 이후 사찰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깨끗해 계속 다니게 됐다"며 "봉안당 때문에 부부만 왔는데, 여름을 맞아 이번에는 아이도 함께 오게 됐다. 좋은 시간과 마음의 충만함을 간직하고 간다"고 전했다. 1577-3444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울 청수사 백중 천도재 눈길

8월 12일 7재 회향기도 진행


서울 청수사 주지 계휴 스님이 백중기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청수사(주지 계휴)가 8월 12일 백중 7재 회향기도를 진행한다.

청수사는 예전 청수장으로 유명한 북한산 자락 국립공원에 위치한 소담한 사찰로 북한산 자락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함께 청량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기에 이름 붙여졌다.

6월 25일 입재한 청수사 백중 7재는 선망부모와 조상천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순국선열도 함께 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문동 72현을 비롯해 다양한 순국선열들이 함께 모셔진다. 축원문을 읽을 때는 여느 사찰과 달리 자손들에게 술과 과일 등 공양물을 영전에 올릴 기회를 준다. 음식 및 꽃공양을 매번 다르게 올리고 공양물도 정성을 기울여 다양하게 준비해 신도들에게 호응이 높다.

주지 계휴 스님은 "여러 어려움을 딛고 기도 정진을 통해 행복을 찾게 된다면 복은 저절로 온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02)916-226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갑룡장학회,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어르신한글교실 · 검정고시반 후원

지역 인재육성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는 7월 23일 진안문화집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23명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총 10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비의 돌탑으로 유명한 마이산 탑사의 돌탑을 축조한 이갑룡 거사의 이름딴 갑룡장학회는 올해로 23년째 진안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서 봉사하는 이들의 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과 최주연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장은 10년간 매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갑룡장학회는 7월 23일 진안 문화집에서 지역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자 가족에게 봉사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진안이 전국에서 봉사와 나눔이 활발히 열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큰 마음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봉사자 여러분이 있기에 진안은 더욱 행복한 살기 좋고 환경 좋은 진안군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장학기금을 마련해주신 진성 스님과 갑룡장학회에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조준혁(진안제일고 2)학생은 "지난 겨울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장학금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진성 스님은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안사랑 지역상품권을 전달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전라북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장, 손동규 의원, 이루라 의원, 김명갑 의원, 동창옥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中, 룽먼석굴 반세기만의 대규모 보존처리

5세기 후반 400년 거쳐 조성
2000년, 유네스코 유산 지정
유리 안구 발견 등 이목 집중
최근 228일간 프로젝트 완료

박영빈 객원기자

중국 불교미술 걸작 중 하나로 불리는 룽먼석굴(龍門石窟)이 약 50년 만에 보존처리를 비롯한 연구조사 등 대규모 보호프로젝트를 마쳤다. 이번 보호프로젝트를 통해 불상 등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성과들이 나왔다. 지난 7월 23일 중국의 '인민일보'는 룽먼석굴의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룽먼석굴은 5세기 후반부터 400년 가까이 낙양교외에 조성된 불교석굴사원으로 현재 2345개의 불감(佛龕), 70개의 불탑, 11만 구의 불상이 전하고 있다. 특히 이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봉선사(奉先寺)의 노사나불(盧舍那佛)이다. 당나라 측천무후의 발원으로 조성된 불상으로 주존인 노사나불좌상은 높이 17.4m로 측천무후의 용모를 본 따 상호를 조성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현재 사찰은 폐사되어 사라졌으나 절벽에 조성된 불상들은 당나라 불교미술의 걸작으로 지난 2000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이 노사나불좌상에 대해서는 지난 1971년 낙석방지와 누수방지 처리를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보존처리와 조사연구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룽먼석굴 연구소 주도하에 진행된 프로젝트는 실시 기간 동안 문화유물 보호개념을 혁신하고 과학적인 연구 작업을 전체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상하이대학, 산시성 문화유물보호연구소, 허난성 문화유물고고학연구소가 함께 참가했으며 이들이 구성한 과학연구팀은 현 노사나불상에 대하여 현황조사, 보존 상태 평가 및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고고학적 작업을 진행했다.


디지털 기술로 불상을 조사하는 연구원들.
사진출처=신화통신

연구팀은 X선 형광분광기, 초분광 영상분광기 등 첨단 검출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문제점, 혹은 새로운 발견을 발표했다. 특히 주불인 노사나불좌상을 비롯해 협시 불상들의 표면에서 금과 은 원소가 검출됐으며, 그 외에 다양한 색상의 안료들이 남아 있는 것이 밝혀졌다. 또 협시인 보현보살상의 오른쪽 눈에서 유리로 만든 안구가 발견돼 학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룽먼석굴 연구소 측은 "불상의 표면에서 대량의 연백(鉛白)성분이 검출됐다. 납으로 만든 안료인 연백은 고대 회화에서 중요한 안료이자, 금박을 접착하는 기본재료로 사용됐다. 또 자연 풍화를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고대 불상 조성과 채색, 보존 방법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또 "보현보살상의 오른쪽 눈에서 발견된 유리안구를 통해 이미 당나라, 혹은 그 이전부터 불상의 사실성을 위해 다양한 재료를 상감했음이 명확해졌다"면서 "보현보살 안구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그 상태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 측은 이 외에도 붕괴 위험이 있는 암반에 대한 보강과 누수 방지 처리를 진행했으며, 디지털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불상의 현황을 완벽하게 측량했다고 발표했다. 측량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차 다른 불상이나 석굴들에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해 보존처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룽먼석굴 연구소장 스자이천은 지난 21일 노사나불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022년 7월 21일, 228일간의 시간 동안 봉선사 노사나불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장은 3일 뒤 보존처리가 완료된 노사나불상을 공개하고, 15일간에 걸쳐 불상주변에 설치된 보호막과 비계를 철거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네팔 주요 불교 관광지 'NO TIKTOK'

보우다나트 탑, 룸비니 성지 등 동참

네팔 유명 관광지에 '틱톡 금지' 표지판이 등장했다. 지난 7월 23일 인도 경제지 '포브스 인디아'는 네팔 관광지의 틱톡커 출입 및 틱톡 촬영금지 소식을 전했다.

최근 네팔 불교성지인 보우다나트 대탑과 룸비니 앞에 '틱톡 금지'라는 새로운 표지판이 등장했다. 이 표지판은 틱톡 영상 제작을 위해 유적지를 방문하는 틱톡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틱톡'은 15초에서 1분 길이의 숏폼(Short-form) 비디오 형식의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는 중국의 글로벌 영상 플랫폼이다. 틱톡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은 '틱토커'라고 칭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틱토커들이 불교사원이나 다른 종교 성지에서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거나 춤을 춰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부처님 탄생성지인 룸비니 사원을 관리하는 룸비니 개발신탁의 사누라지 샤캬(Sanuraj Shakya) 대변인은 "우리는 부처님이 탄생한 성스러운 장소에서 틱톡 영상 촬영을 금지한다. 많인 틱토커들이 영상촬영을 위해 크게 음악을 틀고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거나 춤을 춰 부처님 탄생지를 찾는 전 세계 불자들의 수행정진에 큰 폐를 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누라지 대변인은 또 "틱톡 금지 표지판은 매년 4대 성지를 방문하는 수천, 수만 명의 불자들의 신심어린 순례를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다른 성지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최근 틱톡 촬영을 금지한 보우다나트 대탑 전경.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틱톡 금지 표지판은 카트만두의 세계문화유산인 보우다나트 대탑에도 세워졌다. 네팔 최대의 불교성지인 이 곳은 전 세계에서 방문한 불자들이 탑을 돌며 기도하거나 절을 올리는 등의 신행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틱톡 영상 촬영차 방문한 틱토커나 인플루언서들이 이 장소들에서 촬영을 강행하며 소란스럽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우다나트 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대탑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틱토커들에게 과도한 틱톡촬영 금지규칙을 준수하도록 십여 명의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성지를 알리거나 순례를 격려하기 위한 촬영에 있어서는 촬영을 일부 허락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라다크 방문…종교간 화합 당부

코로나19 후 첫 원거리 방문
불자들에게 '지행합일' 강조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원거리 방문을 나섰다. 인도 북부의 라다크 불교협회의 요청에 따라 라다크를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사원들을 방문하고 종교간의 화합을 당부했다. 지난 7월 24일 '더 티베트 넷'은 달라이라마의 행보에 대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거리 방문과 외부활동을 연기했던 달라이라마가 팬데믹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부일정을 가졌다. 지난 7월 15일, 인도 북부 라다크에 도착한 달라이라마는 라다크 불교협회가 마련한 숙소에서 일주일 가량 휴식을 취하고 첫 공식일정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라다크 불교협회 회장인 툽텐 체왕과 라다크 불교계를 이끄는 틱세 린포체의 공동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라다크 불교협회 측은 "라다크의 많은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다. 대중법문이나 특정 사찰과 기관 방문과 같은 행사가 없더라도 단지 달라이라마께서 라다크에 계신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낀다"며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슬람성원에서 기도를 올리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더 티베트 넷

달라이라마는 24일 오전 라다크의 수도 레의 중심부에 세워진 라다크 불교협회의 축라캉 사원을 방문해 간단한 기도를 봉행하고, 바깥 광장에 모인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날 모인 불자들에게 "이제 곧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이것을 이해하며 실천해야한다"고 지행합일을 강조했다.

이어서 달라이라마는 축라캉 사원에서 인근의 이슬람교 수니파의 자마성원을 방문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자리에서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다크의 모습을 꼽으며 자신을 환영해준 무슬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다시금 부근에 위치한 시아파의 이슬람 성원을 방문했다. 달라이라마를 맞이한 라다크 시아파의 지도자 이맘 바르가르는 "2006년 이 성원이 처음 개원했을 때 달라이라마께서 방문하여 축복해 주었다"고 회상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에서도 특히 라다크는 종교간의 대화와 조화를 뚜렷하게 보이는 장소라고 말하며 종교를 떠나 동일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개신교 중 가장 오래된 교파인 모라비아 형제회가 레에 건립한 교회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달라이라마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선 것과 세계 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세 종교의 사원을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각 종교에 따른 예배에 참석했으며 모든 자리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대화를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네덜란드 미술품 수집가에 불상 반환 명령

"구입 절차 입증 미약" 이유

중국 법원이 불법 국외반출로 추정되는 불상에 대해 중국으로 반환 명령을 내렸다. 지난 7월 2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중국의 '환구시보' 등은 중국 법원이 내린 반환 명령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논란이 된 불상은 송나라 때의 승려 장공조사(章公祖師)의 등신불이다. 당초 건칠불로만 알려져 있던 불상은 지난 2015년 부다페스트 자연사 박물관의 조사로 내부에 실제 스님 유해가 복장돼 있는 것이 밝혀져 세계적인 화제를 끌었다. 이와 함께 이 불상이 도난품이라는 논란도 함께 일어났다.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은 푸젠성 산밍(三明)시 양춘(陽春)마을 주민들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불상은 마을 불당인 보조당에 봉안되어 있던 장공조사상으로 1995년 12월 도난됐고, 이듬해 해외로 유출됐다. 한편 현 소유주인 네덜란드의 미술수집가 오스카 반 오버레임은 "불상을 처음 본 것은 도난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995년 중순이었고, 전 소유주는 94년에 홍콩에서 구입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양춘마을의 장공조사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이 된 송(宋)대 장공조사(章公祖師)의 등신불.
사진출처=가디언

그러나 19일 중국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은 오버레임에게 "1996년에 구입한 불상을 중국으로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오버레임이 주장하는 대로 1996년에 이 불상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어떻게,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가 미약하다"며 명령의 근거를 밝혔다. 재판을 방청한 양춘마을의 주민 린카이안은 "등신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의 정신적 의지처였다. 가능한 한 빨리 등신불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중국 법원의 반환 판결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재판을 맡은 징시로펌의 쑹징 변호사는 "중국과 네덜란드가 지금까지 사법재판에 대한 합의를 상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이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한암선사와 상원사 선원 대중들이 1936년 음력 9월 15일촬영한 사진


불기2965년(1938) 상원사동안거기념 촬영


탄허, 만화스님 상원사 문수전 앞에서 촬영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출토 유물을 살피는 만화선사


최초로 발굴된 일제강점기하 조선불교보국대 사진

사진으로 본 근대 1세기 오대산 역사와 삼화상



근대 오대산삼대화상
월정사 발행
글 사진 윤창화 자현스님
민족사 펴냄/125,0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올 7월 29일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2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한 권은 〈근대 오대산 삼대화상-한암 · 탄허 · 만화선사의 사진집〉과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인 만화희찬 선사의 삶을 정리한 〈오대산을 지켜낸 선승, 만화희찬〉이다. 〈근대 오대산 삼대화상〉 사진집은 한암 · 탄허 · 만화 3대 고승의 생애와 삶, 가르침을 담은 영상 기록인 동시에 근대 오대산 산문(山門)의 생생한 역사이다. 또한 이 사진집 속에는 월정사 중창 불사 관련 사진, 근대 오대산 월정사 기록 사진 등 근현대 1세기 오대산 월정사의 전체를 아우르는 사진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진집은 오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넓게는 한국불교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한암선사(漢巖禪師, 1876~1951)는 일제 강점기와 근대를 통하여 조계종 종정을 4차례나 역임했으며, 정신적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었던 사표적(師表的) 선승이다. 또한 일제의 친일 손짓을 거부한 채 오대산 상원사로 귀산해 한국 선을 중흥발전시키는데 전력했다. 특히 6.25 동란 때에는 상원사 전소를 온몸으로 저지했으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 범종(725년)을 화마(火魔)로부터 살려낸 장본인이다.

탄허선사(呑虛禪師, 1913~1983)도 근현대 고승으로 유불도 3교에 능통한 대석학이었다. 또한 화엄과 선, 유불도를 통합해 한국 사회와 불교의 미래에 대한 대안(원융, 공존)을 제시했으며, 오대산 수도원을 1956년에 설립해 승속을 아우르는 인재양성에 매진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신화엄경합론〉 〈사교(四敎)〉 〈사집(四集)〉 〈육조단경〉 〈보조법어〉 등 한국불교 승가 교육에 근간이 되는 전통 강원 교학의 텍스트를 완역해 간행했다.

만화선사(萬化禪師, 1922~1983)는 한국전쟁 때 전소된 오대산 월정사를 일으킨 중창주이다. 오늘날 오대산 월정사가 총림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하게 된 것은 만화희찬 선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화선사는 한암선사의 승가오칙(참선, 간경, 염불, 의식, 가람수호)과 탄허선사의 화엄사상, 유불도(儒佛道)의 융합사상을 계승한 실천자이다. 만화선사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은 한 사람의 장구(長久)한 염원이 향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증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진집은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다. 이 사진집의 특징은 각 사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속의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은 물론 각 사진의 무대 및 촬영 배경, 시대적 ·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진 한 장이 갖는 의미 등, 사진 설명이 입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사진을 통하여 근대 1세기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변천, 한암선사, 탄허선사, 만화선사의 생애와 사상, 가르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 사진집 속에는 근대 한국불교의 여러 가지 모습도 볼 수 있다.

총 458편 사진수록…한국불교 중요사료
삼화상 생전 인연들 일일이 찾아서 채록
"6.25전란 속 자료소실 많아 아쉬움 커"

한 예로 한암선사와 관련된 사진 중 95쪽과 99쪽의 사진 설명, 105쪽의 한암선사 초대 조계종 종정 선출에 대한 사진 설명, 107쪽의 종정 선출 매일신보 기사, 113쪽의 사진 설명, 특히 125쪽의 한암선사가 경봉스님에게 보낸(1937년) 연하장에 대한 설명은 시대적 · 문화적 지식이 동원된 가치 있는 설명이다. 그리고 131쪽의 한암선사 좌탈 열반상에 대한 설명은 이 사진의 촬영자와 촬영자의 인물 정보, 이 사진의 배포 과정 등 전후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132쪽의 한암선사 열반에 대한 불교신문 보도 기사에서는 당시 불교 종단의 상황도 알 수 있다. 탄허 스님 관련 사진에서는 206쪽의 수도원생 모집 광고 설명은 이 하나의 사진 설명으로 오대산 수도원의 전모를 알 수 있으며, 광고 사진 역시 신문 전면을 그대로 수록했는데, 이 한 장만으로도 시대상을 볼 수 있다. 또 215쪽의 탄허 스님과 동국역경원 연수생 입소식 사진, 151쪽의 방산굴 사진 설명은 방산굴에 대한 사상적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224쪽의 여석회 사진 설명을 통해 여석회의 탄생과 역사를 알 수 있고, 280쪽의 화엄법회 사진 설명은 당시 화엄대법회의 성격, 수강자 개개인에 대한 상황 등 전모가 드러나 있다. 회향식 사진과수강자 명단에는 현 종정이신 중봉성파 대종사, 前 교육원장 무비스님도 포함되어 있다.

만화스님 관련 사진에서는 376쪽의 사진 설명, 그리고 400쪽의 '청담, 서운스님과 만화선사' 사진과 설명에는 당시 월정사 상황, 그리고 한 도량에서 대처승과 비구승이 대치하고 있는 분위기 등이 잘 전달되어 있다.

오대산 월정사 중창 관련 500쪽의 사진 설명에서는, 중창과정의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504쪽의 낙성식 사진에서 낙성 과정은 물론 대웅전의 규모, 양식, 시대적 배경까지 알 수 있다. 월정사 기록 사진 부분에서는 520쪽의 조지훈과 월정사 사진, 특히 524쪽의 '조선불교보국대 사진'은 최초로 발굴된 일제강점기하의 조선불교 보국대 사진이다. 당시 조선불교계에는 31개 각 본산 별로 보국대가 조직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선불교 보국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는데, 이 조선불교 보국대 사진은 일제강점기 조선불교 전체와 관련된 사진이다.

이렇듯 〈근대 오대산 삼대화상〉 사진집에는 일제 강점기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관련 사진 36여 점, 한암선사 관련 사진 80여 점, 탄허선사 관련 사진 158여 점, 만화선사 관련 사진 96여 점, 월정사 중창 관련 사진 34여 점, 월정사 관련 기록 사진 44여 점 등 총 458편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오대산 삼화상〉 간행위원장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은 "지난해부터 한암대선사와 탄허스님, 만화 스님 등 삼화상들의 흩어진 자료나 사진, 일화 등을 한군데 모아 보관할 필요성을 느껴 모으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외로 몰랐던 사진들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들 기억에는 있는데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한게 너무 많았다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각 스님은 "6.25라는 한국전쟁을 통해 유물들이 소실된 것은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3화상들과 생전에 접촉한 일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기억을 되살려 채록했다"며 "특히 대구 파계사 도원 스님은 유일하게 생전에 한암 스님을 모셨던 분이셨다. 1938년도에 오대산으로 들어오셔서 6.25전쟁 전까지 10년 이상을 함께한 한암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채록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탄허 스님과 인연이 있어서 함께 교정을 본 무비 스님의 생생한 증언도 큰 도움이 됐다. 이번 사진집을 통해 오대산 3대 화상의 유훈들이 잘 전승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간의 출간 과정을 전했다.

만화선사 조명한 최초의 책…"두 분 스승 모신 효상좌"



오대산을지켜낸선승, 만화희찬
글 자현 김광식 고영섭 박부영
민족사 펴냄/2만8천원

이 책은 6. 25동란 때 전소된 오대산 월정사 중창에 헌신한 만화선사의 생애와 삶에 대해 조명한 최초의 책이다.

1부에서는 자현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월정사 교무)이 '오대산을 지켜낸 선승, 만화희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인 만화희찬 스님의 성장과 출가 과정, 출가한 이후의 수행과정, 노사(老師)인 한암선사 시봉, 한암선사 열반과정과 오대산 월정사 중창 등 생애와 업적, 수행 등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2부에서는 '오대산 중창과 만화희찬 선사'라는 주제로 논문 6편이 수록되어 있다. 동국대 김광식 교수의 '만화희찬 선사의 삶과 오대산 불교문화' '오대성지의 중창주, 만화희찬 ; 승가오칙의 계승과 실천'이 서술돼 있고, 고영섭 교수의 '만화희찬과 오대산 총림화' '만화희찬의 월정사 적광전 중창과 인법당 상량문 분석', 그리고 박부영 기자의 '오대산 월정사 중창과 만화희찬 선사' '탄허의 수제자로서의 위상과 만화의 제자들'. 이상 6편의 연구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들에서는 만화선사의 오대산 월정사 중창과정과 역할, 한암-탄허-만화선사로 이어지는 오대산 법통, 그리고 만화희찬 선사의 생애와 삶, 가르침 등이 연구 정리되어 있다. 만화 스님은 한암 스님의 손제자이며 탄허 스님의 제자로 두 분의 스승을 동시에 모셨던 효(孝)상좌이다. 자현 스님은 만화 스님에 대해, 만화 스님은 부처님 시자인 아난에 비견된다고 했는데,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25년 동안이나 모셨던 제자이다. 그리고 책 뒤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가산지관 스님이 쓴 〈만화희찬 대선사 행적 비명〉과 〈만회희찬 선사 연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주일 기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대원불교학술총서 • 1

한국불교통사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서를 지향하면서도 철저히 정사(正史)에 의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책은 새로운 형태의 한국불교사 입문서이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92쪽/값 20,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대원불교학술총서 • 2

불교의 무의식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두 주제에 대해 유식학파의 알라야식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마음이론에 대한 정치한 체계를 만날 수 있다.

윌리엄 왈드론 지음/안성두 옮김/신국판/456쪽/값 23,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대원불교학술총서 • 3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구니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 차별적 관습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초기 경전의 비교를 통해 밝혀낸다.

아날라요 스님 지음/김철 옮김/신국판/360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국 불교미술 중추 '일섭 佛母' 한자리에

제4회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
8월 17~23일 마루아트센터 특별관
9월 1일~10월 10일 송광사 성보博

회화 · 조각 등 회원 100여 작품 전시
일섭 스님 '영산회상도 처음 선보여



일섭 스님의 '영산회상도', 현재 칠곡의 대원사로 옮기기 전 대구 남산동 대원사에 모셨던 후불탱화로 석가모니와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 등 4보살을 모시고 사천왕과 제석천왕, 대범천왕을 외호대중으로 하여 10대 제자를 위쪽으로 묘사한 영산회상도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단법인 불교미술일섭문도회(이사장 허길량)가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제4회 일섭문도전 - 불모들의 향연'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인 금용 일섭 스님의 맥을 잇고 있는 일섭문도회는 2012년부터 3년마다 100여 명의 문도들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여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시를 열지 못했다. 2018년 제3회 전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일섭 스님의 칠곡 대원사 석가모니 후불탱화인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허길량의 '관세음보살문도', 전연호의 '하동칠불도 등 회화, 조각, 단청, 공예 등 불교미술 전반에 걸친 회원들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또한 전통예술부터 미디어아트까지, 일섭 스님이 남겨놓은 유산이 현대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계승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일섭문도회는 9월 1일부터 송광사성보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10월 10일까지 2차 전시를 개최한다.

△일섭 스님의 '영산회상도(243×170cm, 1959)'는 현재 칠곡의 대원사로 옮기기 전 대구 남산동 대원사에 모셨던 후불탱화로 석가모니와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 등 4보살을 모시고 사천왕과 제석천왕, 대범천왕을 외호대중으로 하여 10대 제자를 위쪽으로 묘사한 영산회상도이다.

△허길량(前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의 '관세음보살(69×89×221cm, 느티나무)'은 중생들의 발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관세음보살을 구현한 작품이다.

△전연호(대구시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보유자)의 '하동칠불도(96×186cm)'는 대형 괘불을 1/50로 축소한 미니어쳐로,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득도한 하동칠불을 중심으로 김수로왕, 허황옥, 장유화상, 거등왕 그리고 김해 허씨를 받은 둘째와 셋째 왕자까지 묘사하여 하동칠불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금용 일섭 스님(1900~1975)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금호 약효 스님, 보응 문성 스님의 전통을 계승한 한국 근대 불교미술 중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됐으며, 불화, 개금, 단청, 조각 등 다양한 방면에 두루 능통하여 금어(金魚)라는 명칭을 받았다. 일섭 스님은 일생 동안 해인사 사천왕탱화, 조계사 후불탱화, 송광사 시왕가부탱화, 옥천사 팔상탱화, 백양사 사천왕 소조상, 대원사 삼존불 목조상 등 남으로는 제주부터 북으로는 함흥 영변까지 전국의 주요 사찰에 불화와 단청, 불상조각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1975년 입적할 때까지 500여 차례의 불사에 참여했다.

또한 제자들의 불사현장 참여 등을 통해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한국 불교미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불교미술일섭문도회는 일섭 스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불화와 단청, 조각, 공예, 고건축 등 우리나라 불교미술 전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허길량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역 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3명의 회원이 전현직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많은 회원들이 문화재수리기능자,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다. 문도회는 금호 약효 스님이 주석하던 공주 계룡산파 마곡사에 불모비림을 조성해 보응, 일섭 스님, 우일 스님 등의 행적을 기록한 비를 통해 선대를 기리고, 전통을 후세에 계승하는 사명을 원력으로 정진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그리기 대회 수상작품전

10월 10일까지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



으뜸상-이지수(황남초 4), '석조미륵여래 삼존상'

국립경주박물관은 10월 10일까지 어린이박물관 내 특별전시실에서 제38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대회 수상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경주박물관이 주최한 '제38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 작품 160점을 선보인다. 최고상인 으뜸상은 '석조미륵여래 삼존상'을 그린 이지수(황남초 4), '사로국의 갑옷 입은 말'을 그린 이형우(문덕초 5), '여러 모양의 토우장식 목항아리'를 그린 손지혜(황성초 3)가 수상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우리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림을 통한 창의적 표현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198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 대회는 국립경주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전시된 문화재를 감상한 어린이들이 5월 18일(세계 박물관의 날)부터 10일간 그리기 재료를 선착순으로 받아 작품을 완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했다. 전국의 어린이들이 551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의 참여가 많았다. 그림은 문화재 묘사, 문화재 상상화, 박물관 풍경화, 세 가지 표현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도화지나 한지에 채색화나 수묵화로 그린 작품들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시를 감상하는 어린이들 모두가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재 속 이야기를 창작으로 이어가며 더욱 선현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054)740-7547

박재완 기자

'우리 조각' 전승한 父子 조각장을 기억하며…

'정(釘)으로 맥(脈)을 새기다' 展
8월 2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조각장 故 김정섭·김철주 조명
사리함 등 작품·50여 점 선보여



김정섭 · 김철주 부자가 제작한 사리함.

조각장 보유자 故 김정섭(1899~1988)과 故 김철주(1933~2015)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6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1에서 사라지지 않는 빛-작은 전시 '정(釘)으로 맥(脈)을 새기다'를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작고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기리고자 2018년부터 매년 소규모 전시를 열어오고 있다.

김정섭과 김철주는 2대에 걸쳐 사라져가는 조각 기술을 전승하며 탁월한 솜씨와 예술성으로 경지를 이루었다. 한편으로는 고가의 은을 대신하여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사용하는 등 시대를 앞선 시도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전시는 △'조각장의 공방', △'조각장 김정섭 · 김철주', △'금 · 은 · 동의 조화', △'아름다움을 새기다'로 구성되며, 김정섭과 김철주의 작품과 도구 등 50여 점을 선보인다.

'조각장의 공방'에서는 김정섭과 김철주가 함께 작업하던 1970~1980년대 공방을 재현하여 조각 도구와 재료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조각장 김정섭 · 김철주'에서는 두 작가의 조각장으로서의 삶과 예술적 사상을 보여준다. '금 · 은 · 동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새기다'에서는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한 은제오동상감 향로, 사리함 등의 작품을 전시하여 그들의 솜씨와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조각장'은 금속 표면을 두드리거나 깎아 무늬를 새겨 장식하는 기술이나 그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조각장'은 1870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1970년 김정섭이 처음 보유자이다. 그 명맥은 초대 보유자 김정섭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보유자 김철주로 이어졌다. 1989년 보유자가 된 김정섭은 이왕직미술작품제작소 출신의 조선시대 마지막 금속조각장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부친의 기술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김철주 역시 김정섭이 인정했을 만큼 뛰어난 조각장이었다.

개막 이후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시 소개 영상을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유튜브(www.youtube.com/c/국립무형유산원)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063-280-1467

박재완 기자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불교학 올림픽’…“한국불교 세계로 뻗는 초석”

인터뷰

조은수

19차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장
(서울대 철학과 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은수 조직위원장… 서울대 약학과를 거쳐 서울대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간대학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초대 소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기록문화유산 출판소위원회 의장,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2013~2015년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 샤카디타 코리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사진= 박재완 기자

세계불교학대회는 ‘불교학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와 위상 면에서 단연 세계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불교학술대회다.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가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 일원에서 열린다.

본래는 2020년 열려야 하는 대회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간 연기돼 오다가 마침내 개최되는 것이다. 개최와 연기를 반복해야 했던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조은수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장(서울대 철학과 교수)은 흔들림 없이 대회 개최를 추진해왔다.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조은수 조직위원장은 함께 대회를 준비해준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지난 2020년 8월 대회를 앞두고 호텔 예약 등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회를 연기했고, 그 후에도 한 차례 더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같이 준비했던 대학원 학생들은 졸업한 사람도 생겼어요. 매년 새로운 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같이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손에 땀 쥐게 한 유치 과정

세계불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인 세계불교학대회는 1978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 유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201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8차 대회에서 중국 최고 명문인 저장대(浙江大)가 갑자기 유치를 희망하며 한국과 경합을 벌이게 됐다. 치열한 경합 끝에 한국 개최가 결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17년 토론토대학에서 열린 제18차 대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한국의 불교학 연구 수준이 높으며 뛰어난 불교 문화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점에서 선정한다’ 고 발표하더군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수락 연설을 하는 동안 경쟁국인 중국 대표단이 자리를 뜨는 해프닝도 있었죠.”

어렵게 개최되는 한국 대회인 만큼 기대도 크다. 우선 세계불교학계를 주도하는 석학들과 중진학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성과다. 조은수 조직위원장은 “전 세계 36개국 250여 명의 불교학자가 참여해 250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귀띔해줬다.

참여 세계 석학 면면들

실제 대회에 참가하는 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대감은 커진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최고 불교학자라고 평가받는 얀 웨스터호프 옥스퍼드대 교수, 서구 대학 교양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인 〈불교의 기초(The Fundamentals of Buddhism)〉의 저자 루퍼트 게틴 브리스톨대 교수, 인도논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비르기트 켈너 세계불교학회 부회장, 티베트 문헌 연구로 잘 알려진 클라우스 디터 메스 비엔나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미국에서는 〈본각사상〉이라는 저술로 유명한 여성불교학자인 재클린 스톤 프린스턴대학 교수, 중관철학 연구의 대가 제이 가필드 스미스칼리지 교수, 간다라 사본 연구로 잘 알려진 리처드 살로몬 워싱턴대 교수 등이 참여하며, 일본의 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교수, 야마베 노부요시 와세다대 교수 등 유명 불교학자들도 한국을 찾는다.

미국 불교학계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학자인 예일대 교수 일미 스님을 비롯해 김진아 하버드대 교수,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 안준영 미시간대 교수 등도 참여해 논문을 발표한다.

8월 15~19일 19차 세계불교학대회

서울대서 열려… 첫 韓개최 의미커

中명문 저장대 제치고 유치 성공해

“한국 수락 연설에 중국 측 자리 떠”

36개국 250여 명 논문 250편 발표

코로나19 유행에 2년 간 대회 연기

매년 새 팀 꾸려 대회 준비에 박차

“한국불교 세계 알리는 기회” 기대

다양한 스펙트럼의 발표 주제

세계 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들의 주제 역시 눈길을 끈다. 불교철학부터 문헌학, 미술사, 역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윤리학 등 그 폭과 양이 방대하다. 수백의 패널과 섹션 중 주목할 만한 주제를 조은수 조직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조은수 조직위원장은 한 · 중 · 일에 남아 있는 아시아에서 발견된 오타니 컬렉션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집대성 해보는 패널 3번 발표를 비롯해 얀 웨스터호프 옥스퍼드대 교수가 조직한 ‘철학자를 위한 불교철학(Panel 5. Buddhist Philosophy for Philosophers)’과 독일 하이델베르그대 포스트닥 과정에 있는 이상엽 박사가 진행하는 ‘불교의 ‘중국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연속, 변형, 그리고 그 넘어(Panel 10 New Approaches to the ‘Sinification’ of Buddhism: Continuation, Transformation, and Beyond)’ 등을 꼽았다.

또한, 간다라 문헌의 새로운 발굴 자료를 소개하는 패널 14번(Panel 14 Gandhāran Buddhist Manuscripts and Inscriptions: New Discoveries and Research), 〈대승기신론〉의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는 패널 25번(Panel 25 New Studies on the Awakening of Faith or Qixinlun)과 최신 디지털 불교학의 성과를 선보이는 패널과 워크숍도 주목할 발표로 소개했다.

한국불교, 세계적 역량 키워야

조은수 조직위원장은 이번 한국 대회가 “학생들에게는 세계 석학들을 만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고, 한국불교와 한국불교학계에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임을 강조했다.

“한국불교학 연구 수준은 분명 세계적입니다. 하지만 국제적 교류나 리더십은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세계불교학회 이사 20명 중 한국인은 이주형 서울대 교수가 유일합니다. 이제 국제적 활동에 한국불교와 불교학계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그동안 발굴되지 않은 고대 불교 문헌으로 막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세계 불교학자들도 중국과 친분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일본의 유명 불교학자들이 대회 발표를 취소했는데, 아마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뤄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대회를 유치했잖아요.”

학생들에게는 대회 자원봉사를 요청했다. “원래 대회에 참가하려면 교수든 학생이든 참가비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 무료이고 교통비도 드립니다. 세계 석학들을 한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서울대와 동국대뿐만 아니라 불교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대회 자원봉사에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인터뷰 내내 조은수 조직위원장은 ‘불교학’이 인문 · 복합적 연구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 대회의 기대점도 여기에 있다. 세계불교학계의 연구 동향과 성과들이 한국불교학의 지평을 확대해줄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해서다.

“불교학의 영문명은 ‘Buddhist Studies’입니다. 공부(Study)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이는 불교의 역사부터 철학, 예술 등 모든 학문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구미와 아시아 지역의 근대적 불교 연구는 19세기 문헌학 연구에서 시작했으나 현재는 철학, 역사, 문화, 예술 등 인문학의 모든 학문 분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학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세계화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축적된 한국불교 연구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장이자 세계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탈 회 공 고

- 사찰명 : 금계사
- 법 명 : 경 민
-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암로673번길 43

위 사찰은
귀 회와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회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님 법하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①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② 천도의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③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2022년 9월 7일(수)**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수 업 료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접수 연락처 **054)762-5888** / FAX : 054)762-5889
접수기간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자 격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김지공

사주공부 어렵지 않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18기 **명리학** 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9월 5일 (월요일) 개강. 주 2회 4개월 과정
● 매주 월요일 2시~5시 :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 매주 화요일 2시~5시 :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교육과목 : 수리역학매화역수,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강 사 : 이동현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10만명 실관, 17년 강의)
■특 전 : ·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 역학상담사 자격증, 나는역학이다 학술위원 위촉장 수여
· 수료 후 전과목 USB 증정
■수 강 비 : 월/화요일반 : 각 120만원 (전과목 교재대 포함)
■교육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첫건물 나는역학이다 강의센타

나는 역학이다 02)877-8771, 010-9687-0080



화제의 신간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합비법서입니다.
이동현 지음 / 549P / 54,000원
※서적구입 & 동영상신청 나는역학이다. 교보,영풍 등 전국서점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6

▶ 77회 예고
아쇼까왕의 대군은 깔링가국으로 진군한다. 보병 60만 명은 강가강에서 전선을 타고 이동한다. 기마부대 10만 명과 코끼리부대 9천 명은 육로를 달린다. 1차 집결지인 옛 앙가국 짬빠성은 17요자나 거리로 강가강이 흘렀다.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 수레

깔링가국 정벌은 마우리아국 전군이 나섰다. 전군은 빠딸리뿌뜨라 성 안팎에서 출동준비태세 단계로 돌입했다. 코끼리부대 9천 명과 기마부대 10만 명은 성 밖에서 육로로 이동할 준비를 했고, 보병 60만 명은 강가강 강변에서 전선에 오르기 위해 야영을 했다. 보병은 전선을 타야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다. 크고 작은 전선들이 마우리아국 모든 곳에서 모이고 있었다.

전군의 출동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아쇼까라마 주지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마하데바라 수상을 찾아와 건의한 문제 때문이었다. 어제 늦은 오후였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마하데바라 수상 접견실을 예고 없이 들렀던 것이다.

"장로님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사문이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전투는 군사가 하는 것입니다. 사문들은 전장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마하데바라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진지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전장 터에서는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사문은 붓다의 말씀으로 불안한 군사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이 필요합니다."

마하데바라가 웃었다. 출동준비태세 단계인데, 지금 이동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의 규모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수상께서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까?"

"대왕님이 총사령관입니다. 저는 전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출동을 늦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었다. 마하데바라는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빠딸리뿌뜨라 성에 남아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왕님을 뵐 수 있습니까?"

"강가강에 나가 계십니다. 강가강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대왕님께 꼭 사문의 뜻을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비님께서 저에게 간곡히 말씀하시어 생각해 낸 것이 이동법당입니다. 대비님은 붓다의 가피가 대왕님께 내리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붓다의 가피가 내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붓다를 믿는 만큼 붓다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왕님께서는 자신을 믿음의 상속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문이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승가의 보호자에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왕님께서 장로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상님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전쟁에서 백만 대군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마하데바라는 의아해 했다.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말했다.

"왜 난감해 하십니까?"

"전장 터에 나가는 장수와 군사들은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마음이 불안한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극복한 장수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붓다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복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동법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왕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제야 마하데바라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말에 공감했다. 자신에게 군권이 있다면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전쟁은 승리가 목적이므로 모든 힘을 다 모아야하기 때문이었다. 붓다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 수십 마리의 양을 잡아 신들에게 제사지내는 희생제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건의로 없어졌지만 전쟁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부활하고 싶은 것이 마하데바라의 마음이었다. 선왕 때부터 자주 했던 희생제는 아쇼까왕이 즉위해서도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빠딸리뿌뜨라 성에 오기 전까지는 그 전통이 이어졌던 것이다.

마하데바라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와 헤어진 뒤 수상 접견실에서 뜨거운 짜이를 한 잔 더 마셨다. 비록 자신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관할 수는 없었다.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거들어야 했다. 예전에 깔링가국 정벌 실패 책임으로 추방당했던 아픈 기억도 되살아났다.

어느 새 초저녁이 되어 선선한 바람이 창을 넘어왔다. 하얀 비단 커튼이 펄럭였다. 마하데바라는 창을 닫으면서 검푸른 어둠이 스멀스멀 차오르는 하늘을 응시했다. 하늘에는 아쇼까왕이 끼고 다니는 상아반지 같은 초승달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마하데바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 하루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마하데바라는 말을 타고 아쇼까왕 침전으로 갔다. 말먹이꾼 군사가 말했다.

"수상님, 대왕님께서는 강가강 임시군막에 계시지 않을까요?"

"아차, 내 정신이 나갔구먼. 허나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대왕님 침전 다실로 들어가 보자."



침전 다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였다. 마하데바라는 불을 보고 아쇼까왕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마하데바라의 예감은 맞았다. 아쇼까왕이 창 너머로 걸어오는 마하데바라를 발견하고는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마하데바라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침전에 계시지 않았다면 소신은 강가강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소?"

"소신이 생각할 때는 급한 일입니다."

"잘 됐소. 오후에 대비님을 여기서 뵙고 모처럼 정담을 나누었소. 대비님께서 좀 전에 가시어 이제 강가강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소."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얘기해 보시오."

마하데바라는 다르마 대비 얘기부터 꺼냈다. 아쇼까왕이 다르마 대비의 말이라고 하면 일단 마음을 열기 때문이었다.

"대비님께서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부탁했다는 것이오?"

"전장 터에 나가시는 대왕님께서 붓다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오?"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장 터까지 이동법당을 끌고 가자는 것이오?"

"뗏목을 이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법당을 만들면 무슨 이익이 있소?"

"전장 터에 나가는 군사들의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사문들이 법문하여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소."

"장로님은 대왕님의 일에 방관할 수는 없어 출입이 통제된 강가강으로 가지 못하고 소신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동법당을 만드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오?"

"바퀴가 달린 거대한 수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 안에 있는 목수들을 다 부른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나는 급하오. 내일 새벽에 출동명령을 내리려고 했소. 그래서 오늘 다르마 대비님을 뵌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그래도 재고해 주십시오. 전쟁에서는 붓다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들이 도와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깔링가국 정벌은 할아버지 대왕님, 아버지 대왕님의 숙원이었소.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정벌할 것이오."

"소신은 마음이 급해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쇼까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내일 새벽에 출동명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동법당을 만들자고 건의하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출동이 늦어지면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이 뻔했다. 군수물자는 예상보다 더 필요할 터였다. 속전이 돼야만 군수물자는 그만큼 더 절약되기 때문이었다. 코끼리부대만 해도 9천 마리의 코끼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풀과 과일은 어마어마했다. 9천 마리의 코끼리는 작은 산 하나를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렸다. 기병부대 10만 마리의 말이 먹는 풀과 물도 마찬가지였다. 보병 60만 명이 먹는 군량미도 하루에 창고 열 개 동을 바닥나게 했다. 그러나 아쇼까왕이 결심한 듯 말했다.

"좋소. 이동법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출동을 늦추겠소. 대신 수상 책임 하에 가장 빠른 시간에 이동법당을 만드시오."

"예, 대왕님."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또 다른 법문은 없었소?"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백만 대군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라는 붓다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붓다의 말씀을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소."

"소신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마하데바라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상 접견실로 가서 밤을 새웠다. 아쇼까왕도 강가강 임시군막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비 띠쉬아락시따를 불러 침전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마하데바라는 다음 날 새벽녘에 비서실장 격인 대신을 급히 찾았다. 깔링가국 정벌에 참전하지 않고 마하데바라를 보좌하는 대신이었다. 마하데바라가 지시했다.

"코끼리가 끄는 큰 수레를 만들 것이오. 대왕님 지시라오."

"대왕님이 타실 수레입니까?"

"아니오.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 수레라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늙은 목수들을 아쇼까라마로 모이게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하데바라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자문을 받아 이동법당을 만드는 총책임자가 되었다. 그의 측근인 대신은 목수들을 감독하고 목재를 구하는 데 동분서주했다. 수레바퀴 재목은 참나무 종류인 살라나무, 법당은 모두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의견대로 전단향나무를 사용했다. 목수들 중에서 일부는 살라나무 바퀴에 엷은 철판을 씌웠다. 거대한 수레는 바퀴를 달자 형태가 갖추어졌다. 그러자 우두머리 목수가 전단향나무로 천개(天蓋)와 불상을 조각하고 또 일부 목수들은 불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목수들은 이동법당 수레를 한 달 만에 완성했다. 마하데바라 측근 대신이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면서 밤낮으로 목수들을 지휘 감독했던 것이다. 이동법당 수레가 강가강 강변으로 내려오자 아쇼까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병 60만 명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아쇼까왕은 이동법당 수레를 뗏목에 실어 깔링가국 변경까지 운반하겠다는 작전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다. 〈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⑮ 우두종(牛頭宗)의 창립자 법융(法融)



▶ 한줄 요약
당(唐) 초기에 활동한 우두 법융(牛頭法融, 594~657)은 중국선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화선의 근원, 중화선 건립자는 우두"

중국선의 사상적 전개에 있어서 우두선(牛頭禪)은 보리 달마(菩提達摩)의 달마선과 동산법문(東山法門)을 세운 도신(道信)과는 또 다른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후대에 달마-혜가계, 그리고 도신-홍인의 동산법문, 또한 우두종을 창립한 우두 법융 등을 모두 하나의 법계로 연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 계통은 각각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심층적인 선사상(禪思想)에 있어서 서로 극명한 차별이 나타나며, 법맥도 후대에 조작한 흔적이 여실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唐) 초기에 활동한 우두 법융(牛頭法融, 594~657)은 중국선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근현대에 학승으로 유명한 인순(印順) 법사가 찬술한 〈선종사상사〉에서 "중화선의 근원, 중화선의 건립자는 우두(牛頭)이다. 마땅히 동하(東夏, 中國)의 달마(達磨)는 바로 법융(法融)인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조사선의 건립자는 달마나 혜능, 신회 등이 아니라 바로 법융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후기 조사선의 사상에서 본다면 또한 어느 정도 인정할 점도 있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법융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동산법문의 법맥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법융과 관련된 기록은 〈경덕전등록〉, 〈송고승전〉, 〈불조통기〉 등에 다양하게 실려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도선(道宣)의 〈속고승전〉 권20에 실린 전기라고 할 수 있다. 도선(596~667)은 법융과 동시대에 활동하였으므로 그가 찬술한 전기는 후대에 이루어진 법맥의 조작이나 전설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법융은 속성이 위(韋)씨이고, 윤주(潤州) 연릉(延陵, 현 江蘇省 丹陽市) 출신이라고 한다. 법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19세에 한림원(翰林院)의 경전들을 대부분 열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그는 "유가와 도가 등의 세속의 글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쌀겨나 쭉정이와 같구나. 반야(般若)의 지관(止觀)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을 구제할 만하다"라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 후에 법융은 결국 모산(茅山)에 들어가서 삼론종(三論宗)의 경(炅)법사를 스승으로 하여 출가하였다. 후에 대명(大明) 법사를 따르며 수년간 〈화엄경〉, 〈대품반야〉, 〈유마경〉, 〈법화경〉 등의 경전들을 수습하였으며, 대명 법사가 입적한 이후에 여러 지방을 유행하며 다양한 경론을 익혔지만, 마음에 증득함이 없자 "고요한 숲에서 마음을 모아 고요히 안거하였으며, 20년을 한결같이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한다.

정관(貞觀) 17년(643)에 법융은 금릉(金陵) 우두산(牛頭山) 유서사(幽栖寺)로 옮겨 북쪽 암벽 아래에 풀로 지붕을 엮은 선실을 지어서, "밤낮으로 사택(思擇)하여, 촌음도 어그러짐이 없었다"라고 하며, 이에 법융을 따르는 문도들이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영휘(永徽) 3년(652) 현령의 초청을 받아 건초사(建初寺)에 가서 〈대품반야경〉을 강의하였는데, 강의를 듣고자 1000여 명의 승려들이 청강하였다고 한다.

현경(顯慶) 원년(656)에 읍의 재상 소원선(蕭元善)이 건초사에 주석하기를 거듭 청하자 법융은 제자들을 불러 법을 부촉하고, "내가 다시는 이 산을 밟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떠나자 산의 새와 짐승들이 한 달이 넘도록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았고, 암자 앞에 큰 오동나무 네 그루가 홀연히 시들었다고 한다. 다음 해 정사년(丁巳年) 윤(閏) 정월(正月) 23일 건초사에서 세수 64세, 법랍(法臘) 41세로 입적하였다.

법융의 저술은 〈주금강반야경(注金剛般若經)〉 1권,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意)〉 1권, 〈유마경기(維摩經記)〉 2권, 〈유마경요략소(維摩經要略疏)〉 1권 등이 있다고 하지만 모두 전해지지 않으며, 〈송고승전〉 권10에 유칙(惟則)이 법융의 문집 3권의 서문을 썼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시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경덕전등록〉 권30에 실린 〈우두산초조법융선사심명(牛頭山初祖法融禪師心銘)〉이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종밀(宗密)의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에는 법융이 〈절관론(絶觀論)〉을 찬술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연수(延壽)의 〈종경록(宗鏡錄)〉 권97에 일단의 문구가 인용되고 있으며, 또한 돈황에서 출토된 문서 가운데 4본의 〈절관론〉 사본(寫本)이 존재한다.



당(唐) 초기에 활동한 우두 법융(牛頭法融, 594~657)은 중국선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네이버지식백과 중국역대인물 초상화, 제공=한국인문고전연구소

인순, "조사선 건립자 바로 법융"
19세에 한림원 경전 대부분 열람
법융사상 장자사상과 결합되기도
우두선 정통성 위해 도신 제자로

〈전등록〉에 실린 법융의 〈심명〉은 "심성(心性)은 생하지 않는데, 어찌 알아보겠는가? 본래 일법(一法)도 없는데, 누가 단련함을 논하겠는가?"라고 시작된다. 이로부터 보자면, 법융은 심(心)과 경(境)이 본적(本寂)하다는 반야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외경(外境)은 마음을 따라 사라지고, 마음은 외경을 따라 없어짐"이라는 문구로부터 무심(無心)과 무경(無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심이어야 지킬 수 있고[無心可守], 무경이어야 관할 수 있음[無境可觀]"이며, 따라서 "관함을 끊고 지킴을 잊음[絶觀忘守]"인 것이다. 물론 이를 보다 분석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선사상을 도출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른바 '무심합도(無心合道)'로 귀결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법융의 사상은 이후 점차 〈장자(莊子)〉의 사상과 결합하게 된다. 여기에는 삼론학과 그의 영향을 받아서 출현한 성현영(成玄英)의 '중현학(重玄學)'의 융합이 두드러진다. 이를 상세히 논하는 것은 지면상 가능하지 않지만, 후대에 종밀이 〈선문사자승습도(禪門師資承襲圖)〉에서 "우두(牛頭)의 종지(宗旨)는 제법이 꿈같고 본래 일이 없으며, 심경(心境)이 본래 공적하여 이제 비로소 공적해짐이 아님을 체득함이다. …… 이미 본래 일이 없음을 요달하면 이치에 마땅히 자기를 잃고[喪己] 정을 잊음[忘情]이다. 정을 잊음[情忘]은 곧 고통의 원인이 끊어지고 일체의 고액(苦厄)을 제도한다. 이것이 정을 잊음으로 닦음을 삼는 것이다"라고 우두선을 평가하는 문구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상기(喪己)', '망정(忘情)', '정망(情忘)' 등은 모두 〈장자〉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융의 법계를 계승한 유칙의 전기에서는 "천지가 무물(無物)임에 나도 무물이다. 비록 무물이나 일찍이 물(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바로 성인은 그림자 같고 백성은 꿈같은데[如夢], 누가 나고 죽는가? 지인(至人)은 이로써 능히 홀로 비추고[獨照], 능히 만물의 주(主)가 되니, 내가 이를 알았다."(〈宋高僧傳〉卷10)라는 문구에서는 〈장자〉의 색채가 더욱 분명하다. 이러한 까닭에 우두종은 바로 중국선의 '장학화(莊學化)'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로 우두 법융은 그 법계를 동산법문을 개창한 도신의 사법제자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의 사료(史料)를 고찰하면, 이러한 법계는 우두종에 귀의한 이화(李華, 715~766)가 찬술한 〈윤주학림사고경산대사비명(潤州鶴林寺故徑山大師碑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화는 천태종의 형계담연(荊溪湛然)과 밀교의 선무외(善無畏) 등으로부터 불교를 배웠지만, 만년에 법융의 5세손인 학림 현소(鶴林玄素, 668~752)에게 귀의했다. 그런데 당시는 도신-홍인의 동산법문이 불교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화가 자신이 귀의한 우두선의 초조인 법융을 도신의 사법제자로 연결시킨 것은 우두선에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또한 이화가 설정한 법융의 법맥은 유우석(劉禹錫)의 〈우두산제일조융대사탑기(牛頭山第一祖融大師塔記)〉에 그대로 인용되고, 나아가 이길보(李吉甫)의 〈대각선사비명(大覺禪師碑銘)〉과 종밀의 〈선문사자승습도〉 등에 인용되면서 법융은 도신의 사법제자로 굳어졌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배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던 당조(唐朝)를 한순간에 쇠락하게 한 안사(安史)의 난(755~763)을 언급해야 한다. 안사의 난은 난이 발생한 장안과 낙양 등이 모두 초토화하였으며, 그 지역의 인구가 70%가 줄어들 정도로 폐해가 심각했고, 그에 따라 지식인들은 기존의 사상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사상을 희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민족적 긍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유학에서는 '고문(古文)운동'이 발생하였고, 불교와 도교에서는 유불도 삼교합일의 기치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불교 가운데 민족적 정서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중국선이었고, 그 가운데 〈장자〉와 결합한 우두선은 더욱 관심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사의 난 이후에 중앙정부의 최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우두종에 귀의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회창법란(會昌法亂, 842~845)'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회창법란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당시 승상의 지위에 있었던 이덕유(李德裕, 787~850)와 도사 조귀진(趙歸眞)으로, 그 가운데 이덕유는 바로 우두종에 깊이 귀의한 인물이다. 특히 그의 부친인 이길보는 중서시랑을 역임했었고, 조국공(趙國公)의 작위를 받은 고관으로 청량 징관(淸涼澄觀)이 〈화엄정요(華嚴正要)〉를 찬술해줄 정도로 화엄종에 귀의하였지만, 안사의 난 이후에 우두종에 귀의한 인물이다. 그에 따라 이덕유도 우두종에 귀의하였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회창법란은 이덕유가 기존의 모든 불교를 없애버리고 '우두종'을 부흥시키고자 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회창법란 시기에 수많은 승려가 피살되었지만, 우두종 계열의 승려와 사찰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화로부터 우두종의 법계가 동산법문에 연결됨으로 남종선 계통도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법란 이후에는 우두선의 사상이 철저하게 삼투된 조사선이 중국불교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인순 법사의 "중화선의 근원, 중화선의 건립자는 우두 법융"이라는 평가의 소이연을 짐작할 수 있으며, 우두 법융의 사상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제1회 반려동물·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동물을 '가족'이나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펫미족(Pet+Me)'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산 이듬해부터 '동식물 천도재'를 올리고 있는 환경본찰(環境本刹) 강릉 현덕사가 '제1회 반려동물·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 못지않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의 잊지 못할 교감 순간, 함께 나누고픈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이별 순간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만들고 나눈 사랑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지 현 종

주제 및 형식 반려동물과 식물과 관련된 글이면 주제, 형식 모두 무관
분 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한글포인트 10, A4용지 2매 내외) ※반려동물 및 식물 사진(사진 3장 이내)
지원자격 반려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는 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기간 2022년 7월 1일 ~ 8월 31일 까지
접 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hj569569@gmail.com)
수상자 발표 2022년 9월 20일(현덕사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연락)
시 상 식 2022년 10월 15일(토) 오전 11시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에서 함께 진행
시 상 대상(1명,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1명, 상금 70만원), 우수상(2명, 상금 50만원씩), 장려상(3명, 상금 10만원씩)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특별부상으로 '반려동물 천도재' 무료 봉행 예정

※ 현덕사는 수상작품으로 책 제작, 전시, 영상 제작 등으로 향후 활용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 덕 사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삼산리, 현덕사) 문의 (033)661-5878 www.hyundeoksa.or.kr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⑮ 서방정토는 어떤 곳일까?

▶ 한줄 요약
한 · 중 · 일 3국은 그 어느 종파보다도 아미타사상에 입각한 정토신앙이 널리 퍼지고 흥성했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토변상도〉가 많이 그려졌다.



서방정토 면면, 화폭에 담아내다

지난 연재에서 돈황 제220굴 〈서방정토변상도〉의 면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서방정토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어떤 곳일까?

경전에 따르면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토(十萬億佛土)를 지나 극락정토가 있으며, 이곳에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주재하고 있다고 한다.

아미타불과 서방정토에 대한 대승경전이 편찬된 시기는 기원을 전후한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유스(Amitāyus)'와 '아미타바(Amitābha)'로, 번역하면, '무량한 수명을 가진 자' '무량한 광명을 지닌 자'이다. 대중부 계통에서 여래의 위력과 수명이 한량없다고 함으로써 부처를 상징하는 두 설이 동일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에 근거하여 대승 보살의 이상적 형태로 출현한 부처가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방정토가 있다는 ' 십만억불토 '의 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되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광년(光年)의 단위로는 환산할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보게 된다.

얼마 전 보도에서 "46억년 전 은하…135억년 전 빛도 찾는다" 는 기사를 읽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을 통해서 관측되었다고 하는데 이 우주망원경은 이전의 '허블망원경' 의 100배로 현존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머지않아 십억불토의 서방정토도 관측되리라 기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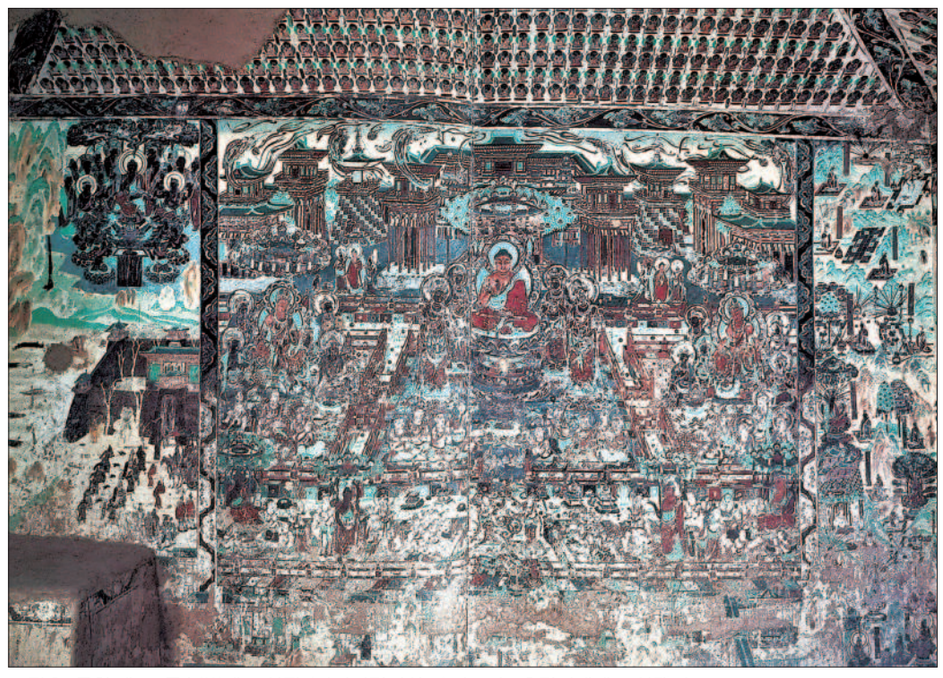
그러나 붓다는 이러한 관측기술을 통해서 서방정토를 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 즉, '불안(佛眼)' 을 통해 보신 것이니 그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우주망원경이라도 결국은 인간의 육안(肉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니 말이다. 여기서 잠시 〈금강경〉 제18 일체동관분(一切同觀分)의 5안(眼) 즉,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 을 떠올려 보았다.

아미타불을 주제로 한 경전으로는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아미타경〉 등이 있다. 이에 의하면, 아미타불은 일찍이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이 세상에 있을 때 법장(法藏)이라는 이름의 보살이었다. 그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뜻을 세우고 살아 있는 모든 자를 구제하고자 48원(願)을 세웠다. 법장은 오랜 기간의 수행을 거쳐 본원을 성취해 아미타불로서 ' 극락(極樂) ' 이라는 서방정토를 주재하게 되었다. 그 때가 지금으로부터 10겁(劫) 전의 일이다.

극락세계는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 대승불교에서는 정토(淨土)의 대표적인 장소로 삼았다. 그리고 뭇 생명 있는 자들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모두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근거한 것이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24원(大願)이었다가 점차 늘어난 듯하며, 〈무량수경〉과 〈무량수여래회〉에는 48원, 티베트 역에는 49원이 전해진다.



그림①. 둔황 제217굴 북벽에 그려진 〈관무량수경변상도〉의 모습. 성당시대에 조성됐다.



그림②. 둔황 제329굴 남벽에 조성된 〈아미타경변상도〉의 모습. 초당시대에 조성됐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내가 부처되는 국토에는 지옥 · 아귀 · 축생 등 삼악도(三惡道)의 불행이 없을 것, 내 국토에 가서 나는 이의 목숨이 한량이 없을 것, 어떤 중생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내 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가서 나려고 하는 이는 열 번만 내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가서 나게 될 것, 그리고 내 국토에 가서 나는 보살들은 모두 나라연천(那羅延天)과 같은 굳센 몸을 얻게 될 것 등 오르지 중생구제를 위한 발심이다. 그리고 서방정토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내 국토는 땅 위나 허공에 있는 궁전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시냇물이나 연못이나 화초나 나무나 온갖 물건이 모두 여러 가지 보배와 향으로 되어 비길 데 없이 훌륭하며, 그 물건들에서 나는 향기는 시방세계(十方世界)에 풍겨 그 냄새를 맡는 이는 모두 거룩한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국토에 가서 나는 사람들은 옷을 입을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옷이 저절로 몸에 입혀지게 되어 바느질한 자취나 물들인 흔적이나 빨래한 자국이 없을 것, 다른 세계 보살로서 내 이름을 들은 이는 부처님 법에서 물러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즉, 서원의 내용은 첫째, 아미타불에 관한 것, 둘째, 아미타불의 국토에 관한 것, 셋째, 중생에 관한 것으로 나뉘는데, 그 중 중생에 관한 내용은 다시 그 불국토에 태어난 자에 관한 것과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것으로 이뤄져 있다.

이 48본원들은 아미타불이 중생들의 정신적인 완성은 물론, 그 정신적 완성의 환경인 국토의 장엄, 물질적인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일체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 정신의 극치라 하겠다.

극락정토, 대승불교의 이상 세계
"모든 이 구제" 서원 세운 '법장'
아미타불 되어 서방정토 주재해
정토 모습 도상화…신앙 이끌어

이와 같은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정토에 태어나 복을 누리며 산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아미타신앙 즉, 정토신앙은 중국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이르는 사이 성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 율사(慈藏律師)가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를 저술하면서 정토신앙이 널리 퍼졌으며, 특히, 이 아미타염불을 널리 권장한 원효 대사의 공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라시대에는 집집마다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이후 아미타신앙은 특정 종파에 국한되지 않고 불교신앙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일본에서는 12세기에 형성된 정토종과 13세기에 형성된 정토진종(淨土眞宗)이 오늘날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한 · 중 · 일 3국은 그 어느 종파보다도 아미타사상에 입각한 정토신앙이 널리 퍼지고 흥성했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토변상도〉가 많이 그려졌다.

〈정토변상도〉는 〈서방정토변〉 〈아미타오십보살도〉 〈미륵정토변〉 〈동방정토변〉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돈황벽화에서 이 네 가지 유형의 경변상도는 400여 곳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어 돈황 경변상도 중에서 가장 큰 유형이다. 그 중 〈서방정토변〉과 〈아미타경변〉의 예술적 성취가 가장 뛰어나 정토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현재 학술적으로 〈서방정토변〉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무량수경변상도〉, 〈아미타경변상도〉 및 〈관무량수경변상도〉로 이 모두 화사(畫師)가 경전에 의거해 창작한 것이다.

둔황 벽화에는 〈서방정토변〉 125벽, 〈동방약사변〉가 64벽, 〈미륵정토변〉 64벽이 있다. 대부분 규모가 크고, 화풍이 강렬하고, 장엄하며, 화려하면서도 북위시대 벽화의 거친 분위기를 일소하고 있다. 화면 구도는 대체로 비슷한 편인데, 주존불은 중간에 있는 연꽃보좌에 앉아 있고, 좌우에는 양대 보살이 있고 사방에는 나한, 금강 등 다양한 권속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늘에는 비천이 날고 앞에는 기악(技樂)이 있고, 겹겹이 칠보 누각으로 가득하다. 제172굴 남벽과 제217굴 북벽의 성당시대 〈관무량수경변〉(그림①), 제220굴 남벽과 제321굴 북벽 초당 〈무량수경변〉, 제329굴 남벽 초당 〈아미타경변〉(그림②)은 모두 화폭이 크고 예술성이 높아 막고굴 〈서방정토변상도〉의 대표작품이다.

벽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방정토변상도〉의 화면 구성은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화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방 허공전, 중앙 상방 보수단(寶樹段), 중앙 삼존불, 중앙 아래 칠보지(七寶池), 그 아래에 칠보지단이 위치하며, 삼존불의 좌우에는 보각단이 있다. 벽면의 크기에 따라 그림 조합은 실제 상황에 맞게 축소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주체 부분의 삼존불 주위에는 많은 불보살이 둘러싸여 있으며, 법회가 진행되는 입구 벽화 상방에는 각각 누각이 그려져 있다. 정자 아래에는 꽃이 가득하며, 환희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아름다운 비천이 높이 날면서 꽃을 뿌리는 등 여러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 상서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많은 건축물과 인물들은 화면상에서 주(主), 차(次)가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색채는 찬란하면서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당대(唐代) 화가의 웅장한 화면처리 능력과 표현 기술이 완벽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말한 〈서방정토변상도〉 3유형의 구분 방법은 〈아미타경변상도〉와 〈무량수경변상도〉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고, 〈관무량수경변상도〉의 주존은 석가모니불이며 좌우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다. 구분 방법으로 석가모니불 미간의 백호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경전의 '조편시방무량세계(照遍十方無量世界)' 와 일치한다. 또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보관과 수인도 〈아미타경변상도〉와 〈무량수경변상도〉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는 다르다.

〈관무량수경변상도〉의 주체화면 양측에는 '미생원(未生怨)' 과 '십육관(十六觀)' 이 있는데, 종종 상하 직사각형 연환화식(連環畵式) 구도에서는 〈무량수경〉의 '미생원' 이야기와 '십육관(十六觀)' 을 표현하고 있다. 〈아미타경변상도〉와 〈무량수경변상도〉는 이 두 부분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관무량수경변상도〉는 칠보지 부분에 3명 혹은 4명의 연화 화생동자를 그리고 있는데, 이는 〈무량수경〉의 '삼배왕생(三輩往生)' 을 표현한 것이다. 〈아미타경변상도〉에서는 절대로 '연화화생' 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한국의 민중의술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페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페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Monthly Bultube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적지 않은 스님들과 불교단체들이 유튜브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불교'라는 한정된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와중에 이를 뛰어 넘은 불교 유튜브가 있다. 바로 불교계 명사들의 강연, 특히 스님들의 강설이다. 코로나 재확산 시기, 사찰로 향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다시금 이러한 주제의 콘텐츠를 찾아 보며 마음상담을 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강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애를 가졌습니다'
youtu.be/G2_ldkzHxiM

비대면 시대를 맞아 법륜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 행복학교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의 고를 어루만지는 즉문즉설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답답하면 물어라"를 캐치프레이즈로 진행 중인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16만 명이 넘는 국내 불교유튜브 중 최다 구독 채널이다.

2011년 채널 개설 이후 법륜 스님은 한 주에 2건 이상씩 꾸준히 즉문즉설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현재까지 1830회의 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최근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은 1816회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애를 가졌습니다' 영상이다. 약 27분 가량의 영상으로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는 긴 편이지만, 열독률은 매우 높다.

여기서 법륜 스님은 "욕심이 망친다. 미련을 갖지 말고 선택해서 자유로워지라"고 조언한다. 남편에게 끄달리는 그 마음 조차도 하나의 욕심이라는 것이고, 남편이라는 외부 조건을 떠나서 본인을 면밀히 살피고 자유로워지라는 것이었다. 스님에게 묻기엔 다소 세속적인 질문이지만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에는 이러한 굴레가 없다.

댓글도 4500개가 달리는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담자에게 수많은 이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댓글에는 "저도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 이혼 한 지 6년 됐는데 어려운 사람 돕고 잘 산다.", "타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행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진리다."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강설

정목 스님의 유나방송
'인생의 해답을 밖에서 묻지 마라'
youtu.be/OJTWRkWKpSE

불교계 대표 멘토 중 한 명인 정목 스님은 오랜 세월 라디오 방송인 '유나방송'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했다. 대중의 어려움을 듣고 따뜻한 말로 어루만지는 스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고, 스님은 이러한 유나방송을 2009년 1월 유튜브 채널로 새롭게 가꾼다.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마음공부전문방송 유나는 정목 스님이 중심이 되어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영상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선물하는 곳이다.

정목 스님은 "거대한 바다도 또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이루어지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모여 커다란 세상을 이룬다. 세상 모든 존재들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낱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려있는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구독자는 현재 12만 2000여 명으로 정목 스님의 강설 외에도 '박문호 박사의 생명현상' 특강, 여러 석학을 찾아가는 유나아카데미, 정목 스님의 시낭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최근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정목 스님의 '육군 3사관 학교 초청 강연'인 '인생의 해답을 밖에서 묻지 마라' 영상이다.

7월 4일 업로드된 이 영상은 조회수 7만 6000여 회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등의 화두에 있어서 일종의 해답을 제시한다. 약 42분의 긴 영상으로 스님은 여기서 강연 시작과 함께 '비교하는 버릇 떠나보내기' '마음의 그릇을 키워라' '자신의 역할과 자기 구실 잘하기' '다함께 명상의 시간' 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다.

좋아요는 3600여 회로 "성공과 겸손이 형제라는 말씀에 큰 공감을 하게 됐다." "부드러운 스님 음성에 절로 공부가 됩니다. 소중한 법문 감사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강설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삶이 꽃이 되는 순간, 참된 육바라밀'
youtu.be/OdxpUdi5iyk

법상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도문 스님을 은사로 발심 출가한 뒤 오랫동안 포교 현장에 임하고 있다. 스님은 군승(軍僧)으로 재직하며 군인들에게 마음공부를 전했고, 동시에 인터넷 마음공부 모임인 '목탁소리'를 이끌었다.

현재는 예편하여 사단법인 대원회 부산 대원정사 주지로 있으며, 유튜브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불교TV(BTN), 목탁소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연 닿는 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법상 스님의 설법은 자상하지만 파격적이고, 쉽지만 강력하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없음에도,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괴로움이 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구독자는 12만 4000여 명이다. 대원정사에서 실시한 일요법회를 유튜브로 중계하며, 이를 화요일과 목요일 재편집하여 올린다.

최근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콘텐츠는 6월 26일 게재된 '돈오26, 삶이 꽃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려면, 참된 육바라밀'이다.

스님은 이 영상에서 육바라밀 수행에 대한 방법과 공덕에 대하여 자세히 설한다. 조회수는 12만 7000여 회로 많은 이들이 댓글을 통해 법문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탐방

EBS컬렉션 라이프스타일
'법정 스님의 불일암'
youtu.be/YtO3mWHpXHs

송광사에서 대나무 숲길을 따라 한참 걷다 보면 소박한 암자가 하나 등장한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무소유 정신으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이 손수 짓고, 17년간 수행한 불일암이다. 세 칸짜리 열네 평 작은 본채와 옛 암자의 자재를 재활용한 하사당, 재래식 해우소까지 법정 스님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다. 작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이 집에서 법정 스님은 무얼 깨달았을까.

법정 스님이 나이 쉰둘에 처음 들인 제자, 덕조 스님. "딱 10년만 살아 보라"던 스승의 유지에 따라, 덕조 스님은 불일암에서 홀로 수행 중이다. 스승은 왜 그런 유지를 남겼을까. "꿈이 많고, 혀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없다" 적혀 있는 법정 스님 육필 상량문.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그 글에서 스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EBS컬렉션 라이프스타일은 우리의 삶 속의 다양한 모습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의 세부콘텐츠 '건축탐구, 집'에서는 6월 26일 '송광, 무소유의 집'으로 불일암에 대해 다뤘다. 법정 스님이 직접 짓고 칩거한 집, 자신이 떠나면 '불일암'을 지키라는 스승의 유언, 스님은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영상은 시작한다. 불일암에 대한 소개와 함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가르침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영상이다. 노은주, 김호민 건축가들이 덕조 스님을 만나 여러 가르침에 대해 듣는 이 영상은 조회수는 23만 2000여 회로 150여 회의 댓글이 달렸다.

탐방

EBS다큐
'한국기행, 은둔의 낙원'
youtu.be/gyX7PH7BXJc

남한의 금강산으로 불릴만큼 수려한 산세와 다양한 비경을 간직한 곳 '대둔산'은 산 구비마다 전설을 품고 있는 곳이다. 해발 670m 아찔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는 대둔산의 절경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대둔산에는 숨은 암자 석천암이 있다.



암자로 오를 때 꼭 한 번은 들른다는 선녀폭포에서는 질푸른 녹음사이로 세찬 물줄기가 쉼 없이 이어진다. 시원한 폭포수 소리는 가던 걸음도 멈추게 한다. 산길을 부지런히 걷고 또 걷고 번잡한 속세와 멀어져갈수록 마음 속의 번뇌도 저만치 사라져가는 듯 하다.

이 석천암에는 15년 째 주석하고 있는 천산 스님이 있다. 첩첩산중의 암자에서 정진하고 있는 스님을 EBS다큐팀이 찾았다.

7월 22일 업로드 된 EBS다큐의 '한국기행, 은둔의 낙원-왜 산으로 오셨나요?' 편에서는 15년 전 우연히 석천암을 찾아든 후로 이곳을 평생의 수행터로 삼은 천산 스님의 사연을 담았다.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다 해서 붙은 이름 '석천암'은 암자의 창건설화도 흥미롭다. 암자에 있는 것이라고는 스님의 생활공간과 법당이 전부다. 아는 산행객들이 소원을 빌고 간는 기도처 외에는 암자 구경은 금방 끝이 난다. 먼 동이 터 올 무렵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는 천산 스님은 이 산 속에서 변치않는 일상을 이어가며 정진하고 또 정진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요한 위로와 평안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

이 영상 조회수는 43만 2000여 회로 296개의 댓글이 달렸다. "욕심을 얼만큼 내려놓아야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데, 사람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갈 뿐" 등의 댓글이 남겨져 있다.





여래 법신은 영원한 바라밀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㉙ 바라밀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으로 영원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뒤바뀐 잘못된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여래의 법신은 곧 영원한 바라밀(波羅蜜)이며, 즐거운 바라밀이며, '나' 라는 바라밀이며, 깨끗한 바라밀인 까닭입니다. 부처님 법신을 이렇게 보는 이는 올바른 견해라 하며, 올바른 견해를 가진 이는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입에서 났으며, 바른 법에서 났으며, 법으로 교화하여 법의 재물을 얻은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맑고 깨끗한 지혜란 일체 아라한·벽지불들의 지혜바라밀입니다. 이 맑고 깨끗한 지혜는 비록 깨끗한 지혜라고 말은 하지마는, 저 괴로움이 멸한 진실하고 완전한 법(滅諦)의 경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네 가지를 의지하는 지혜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말하면, 삼승(三乘)을 처음 배우는 이는 법에 어리석지 아니하고, 저 뜻을 마땅히 깨닫고 얻을 것이므로 그를 위하여서 세존께서 네 가지 의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의지한다는 것은 세간의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나에 의지한다는 것은 일체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출세간의 으뜸 중에서도 으뜸(上上)이 되니, 이 가장 으뜸가는 제일의(第一義)가 바로 괴로움이 없어진 법(滅諦)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상(常), 낙(樂), 아(我), 정(淨)을 믿는 것은 그릇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열반 4덕(四德)이라고 하는 영원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청정한 덕은 부처님 법신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법신을 이렇게 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였다. 불자의 정의를 이 장에서 다시 한 번 밝힌다.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설해져 있는 바이기도 한 "부처님 입에서 태어나고 부처님 법에서 교화되어 태어난다."(從佛口生 從法化生)는 말이 강조되면서 출세간의 으뜸 중에서도 으뜸인 제일의가 괴로움이 없어진 멸제(滅諦)이니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 법신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또 상(常), 낙(樂), 아(我), 정(淨)을 바라밀로 표현하며 여래의 법신이 영원한 바라밀이라고 하였다. 바라밀이란 바라밀다를 줄인 말인데 완성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흔히 '저 언덕에 이른다' 는 도피안(到彼岸)으로 번역하는데, 모든 실천적인 수행 전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반야심경주해〉에 설명하기를 "중생이 지혜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것을 차안(此岸)이라 하며 보살이 반야를 닦아 지혜의 성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열반에 도달한 경지를 피안(彼岸)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어떤 곳에는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 바라밀이라고 설명한 곳도 있다. 〈능가경주〉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 바라밀을 수행의 지위와 관련해서 구분해 말하기도 한다. 〈유가론기〉에 의하면 보살의 수행 지위와 관련시켜 아직 초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냥 바라밀이라고 하고, 초지(初地)에서 7지(七地)까지를 근바라밀(近波羅蜜)이라 하며 8지(八地) 이상을 대바라밀(大波羅蜜)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 장(章)에서 설해진 말 가운데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대목은 네 가지 열반 4덕을 의지하는 것은 세간의 법이라 하여 출세간의 상상지(上上智)가 못 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최후의 완성된 열반의 경지인 제일의(第一義) 멸제(滅諦)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무소득(無所得)의 경지다. 수행이 완성된 최후의 경지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조사도 없다' 는 말이 있다. 불견(佛見), 법견(法見), 조견(祖見)이 남아 있으면 아직 완성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가(禪家)에서 오히려 자주 해온 말이다.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남이 있으면 이것이 상(相)이 되어 실제 부처와는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비록 말을 의지하지마는 이때는 의언진여(依言眞如)가 되어 이언진여(離言眞如)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염불로 팔십억겁 생사의 죄 소멸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㉜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염불(念佛) 수행을 하는 방법

불자 여러분! 염불 수행을 할 때 방법은 날짜를 정해 놓고 염불하는 '기일염불(期日念佛)' 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시간염불(時間念佛)' 그리고 천 번 만 번 수량을 정해 놓고 하는 '수량염불(數量念佛)' 수행 등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기일을 정해 놓고 하는 기일염불(期日念佛)은 정해 놓은 날짜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에서 게으른 생각을 떨쳐내고 일념 염불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경전과 논서에는 1일 염불로부터 시작하여 2일 염불, 3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21일, 49일, 100일 염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염불은 1일에서 100일 동안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날짜 정해놓고 하는 '기일염불'
시간 정해놓고 하는 '시간염불'
수량 정해놓고 하는 '수량염불'
실천 방법 충분히 익혀서 실천

〈관무량수경소〉에서는 "일체 범부에게 권하여 하루나 7일간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면 결단코 왕생할 수 있다."라고 기일염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염불 수행을 할 때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시간염불(時間念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뒤로 미루는 마음이 생겨나 염불 수행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 놓고 염불 수행을 하면 잠자는 시간에도 염불이 이어져 몽중일여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염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불자 여러분! 하루에 108번, 천 번, 만 번, 십만 번 등 자기의 역량에 맞게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수량염불(數量念佛)이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십념을 구족하여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까닭에 생각 생각 가운데 팔십억겁 생사의 죄를 제거하느니라."고 하여 구족십념(具足十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도 "7일 동안 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만 번을 채워야 하느니라." 하여 보살의 명호를 만 번 염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량염불은 마음을 전념하게 하는 좋은 방편으로서 잡념을 퇴치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에 대한 강한 집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을 할 때는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익혀 충분히 이해하고 난 후에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에서 말했듯이 다시 말하면 염불(念佛)이란 의미 속에는 모든 우주 만법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서, 또한 깨달은 진리를 미혹한 중생들에게 전하여서 중생 모두가 생사윤회의 고통을 뛰어넘어 상락아정(常樂我淨)의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불(佛)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자각각타 각행원만하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㉘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 3

막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흐르네

"수행승들이여, 또한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관찰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은 첫 번째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두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생성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세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네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뭇 삶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다. 뭇 삶은 그 위의 배다. 빠르게 흐르는 강물 위에 놓일 수도 있고, 느리게 흐르는 강물 위에 놓일 수도 있지만 흐르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어찌 보면 마음대로 흐르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만들어 놓은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도 같다. 그러나 그 배에는 키가 없다.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키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모아 보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쌓이고 쌓여야 없는 키를 계속해서 찾는 자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다. 그 전에는 아무리 알려주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뱅뱅 돈다.

없는 것을 찾는 그 간절함이 마음에 풍선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스승은 풍선을 불어주지는 않는다. 스승은 바늘만 들고 있다. 풍선을 불어오기만 하면 바로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불지 않은 풍선을 가지고 와봐야 아무 소용없다. 풍선을 찔러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기 때문이다. 전하는 것은 없는데 찾는 마음은 버리지 못한다. 그 찾는 마음의 풍선이 가득 차 답답함에 빠진다.

그러다 물 흐르듯 흐름을 알아버린다. 이제 흐름을 막지 않고 잡지 않는다. 그것이 그 뜻이다. 다른 뜻이라는 것이 없다.

뭇 삶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궁구한다. 부처님은 단박에 말씀하신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 궁구하는 그놈이 바로 괴로움이라 바로 일러주신다.

참으로 쉬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듣는 자에게 위임장을 주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기꾼은 빠져 나갈 궁리만 할 것이다. 자기를 잡아 감옥에 보낼 생각은 꿈에도 없다.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임장을 회수할 때까지는 괴로움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사대오온이 형성되어 있는 그 흐름을 역류시키지 않는 일이다. 잘 되는 일과 못되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흐름을 또 역류시켜 버린다. 삶에 대해 항상 이런 역류에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넘어가버린다. 그리고 자신이 역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괴로워한다. 괜찮은 삶이나 괜찮지 않은 삶이나 잘된 일과 잘되지 못한 일은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크고 작은 것의 차이일 뿐이지 역류가 없는 것은 없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자신의 형성에 시비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그에게는 오온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는 말이 사라진다. 그러면 생성되어 소멸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누구나 그 본연이 형성되어 있는데
잘 되고 못 되고를 따지고만 살았네.
그 마음의 주인공이 되고나니
그 형성력 그대로 불편함 없이 지내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간질성 폐질환에 무너진 일상,
미얀마 청년의 눈물

이주노동자 민팡씨 가족 위해 한국행…호흡곤란·기침 잦아
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매일 병원비만 1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8호 | 17 | 전면광고

베를 짜는 북처럼 곧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대한불교조계종 스님 모십니다

수행하시면서 오래 상주하실 스님. 세납40~50대. 현재 조계종 승적으로 사미승. 비구승. 대화 후 (금전조건없이)인계 할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22교구말사 억불사(사설)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구황길 57-12
무각합장 010-4585-5580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 • •
010-8721-2198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 • •
010-5049-1533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부산시 강서구
보시는 상담후 결정
• • •
010-3570-0144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우리함께" 부처님 공부하면서 살아갑시다

- 남은 생을 절에서 살아가실 분(부부 환영)
- 장기간 집중기도 하실 분
- 장기요양 하실 분 • 출가 하실 분
- 주지스님 공양주겸 시봉하실 분
- 출가한 스님으로서 절을 운영하실 스님
- 끝까지 주지스님과 같이 수행하실 스님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선에 있는 절로써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 내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

연락처 010-8945-1424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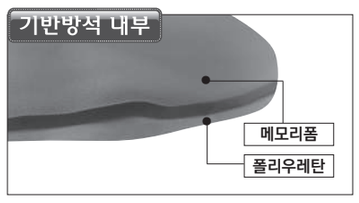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8호 | 18 | 전면광고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3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인천
◎ 부지 : 700평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
◎ 매가 : 11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대구 아파트 상가 포교원 매매입니다.
- 건물 총면적 : 201㎡(61평)
- 가액 : 1억 5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조정 가능함)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매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급매(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 대지136평
- 법당3채, 요사채1동, 화장실2, 정원처럼 잔디밭 조성
- 가액 : 3억 (절충가능)

010-4509-4061

절터로 좋은땅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 정남향에 위치, 630평
- 가액 : 평당 1백 20만원

010-9093-8324
010-9052-573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로 166(보문산 입구 5거리) ● 2층 43평, 시설금 6백만, 보증금 3백만 (합 9백만), 월세 4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전반시설및증설, 판넬설치완비, 도배, 장판, 음향시설) ● 5년전 인수금보다 6백만 절상(건강문제로 급매한것임)

보문산 지장사 무진 합장

010-3049-581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남이면
- 대지 : 951평 (종교부지) 300평(법당뒤 임야)
- 건물 : 법당22평, 요사38평, 지장전40평(2/2층) 창고40평(1/2층, 임대중)
- 신도다수, 시내근접
- 금액 : 현장 답사후 절충

010-3346-3302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현대식 주택건물,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창원시 마산 어시장 상가 3층 정오사
- 법당50평,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영가단
- 4층 스님방1칸, 에어컨2대, 난방기1대, 냉장고2대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554-3784

도심속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건강상 문제로 급매

010-9286-1008

토굴·별장 주택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상담하시는 분이면 최고의 자리
- 대지 253평, 건물 두채, 건물1 요사체 경량철골구조(벽돌마감) 연면적 30평, 방4개, 거실, 주방, 헤우소2개, 건물2 경량철골구조, 법당 20평, 방2개, 헤우소
- 가액 : 3억

010-4866-8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388평
- 대웅전 요사체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7천(절충가능)

010-4123-759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

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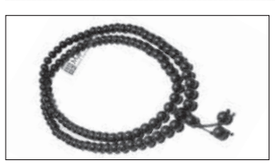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⑭ 차를 우리기 전에 할 일 2

茶, 자신의 본성과 마주하는 것

탄정의 의미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 진실한 마음만큼 좋은 다리가 되어주는 것도 없다. 반대로 서로 속이고 기만한다면, 설령 부모자식이나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불화가 생기며 인연은 멀어진다. 일반적으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길지 않다면 서로 어느 정도 경계를 하게 마련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차 관계가 돈독해지면 서로에 대해 신뢰가 형성된다.

신뢰가 형성된 사람조차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속내를 감추며 말을 얼버무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내 평생에 있어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역시 진실함이다. 솔직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가진 재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올곧은 마음만 같지 못하니 진실하고 솔직하되 겸손하면서 상대방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그 누구라도 당신을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유비가 인재를 구함에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생을 마다않고 삼고초려 하여 와룡과 제갈량의 마음을 움직여 대업의 기초를 다진 것 역시 유명한 일화이다. 제갈량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유비의 진실한 마음과 대업을 향한 원대한 마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진실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관계란 상대적인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실하기를 원하면 친분을 맺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진실한 마음을 보여야 할 것이며 어리석은 추측으로 타인을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자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가 지속될 때 아주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대와 진실한 교류를 함에 있어 다도는 매우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차로써 손님을 대할 때는 손님에 대한 성의와 존중, 배려가 기본이 되고, 차를 통해 감정을 전할 수 있기에 상대방과 더 깊은 감정의 교류가 가능하다. 진실한 마음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우러진 차 자리에서 우려낸 차야말로 달콤하고 상쾌하며 음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소성의 의미

기초차식의 제3식인 소성은 뜨거운 물로 다기와 찻잔을 데워 차의 색과 향기 맛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는 다기를 데우는 단순한 동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일깨워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적 세계로 인도한다는 이치가 담겨 있다.

소성의 단계를 거치면 다기에 온기가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따뜻한 기운이 돌게 되는 것이다.

제호라는 것은 우유 중에서도 수차례 정제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정수를 말한다. 이 제호를 머리에 끼얹는다는 '제호관정' 은 불교에서 숭고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한다.


다기에 온기 돌듯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 돌게 해.

차로 손님맞을 때 존중 배려
차를 통해 감정 전하며 교류
더운 물로 다기와 찻잔 데워

마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기복 없이 마냥 평탄하고 순탄하기는 불가능하다.

어느 날은 일이 힘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 삶이 절망적이기도 하기도 하며, 때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기복이나 고난이 생겼을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의 충고나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다. 참 된 스승의 가르침이나, 친구의 진실한 말 한 마디가 마치 우리 인생의 제호와 같아 복잡하고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 나아갈 길을 깨쳐준다.

다도에서 잘 어우러진 한잔의 차가 바로 제호이다. 차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자라는 영물인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것이다.

잘 우려진 차를 마신다는 것은 차의 정수를 취하는 것이며, 자신의 본성과 마주하는 것이다.

차로써 정신을 일깨워 각성할 수 있는 것은 차가 가진 독특한 매력이라 하겠다.

이처럼 제호관정의 뜻을 빌어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다도란 성숙한 마음의 지혜를 길러내는 방법이자 인격을 연마하는 인생의 고농축 영양제라 할 수 있으며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⑭ 요오드 결핍

미네랄 부족으로 생긴 갑상선 질환

이 지구상에 미네랄은 90여 가지 정도 된다. 각각의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부족하면 각종 질병으로 연결된다. 수많은 미네랄 중에 우리에게는 생소한 요오드(I)라는 미네랄이 있다. 아주 소량 필요한 그 요오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요오드 결핍은 정신지체와 발육부진, 지능 저하 등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요오드 결핍이 심할 경우 갑산선종(甲狀腺腫), 크레틴병, 왜소증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이처럼 요오드 미네랄이 부족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질병이 특정 지역, 내륙 국가, 고산 지방에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걸리는 이 질병의 원인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 치료 방법 또한 없었다.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결과 요오드 미네랄의 부족에서 오는 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 왜 이들 지역에서만 이런 질환 요오드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원인은 바다였다. 바다에서 먼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다에서 멀다 보니. 요오드 미네랄이 들어있는 해산물을 먹을 기회가 없고, 해초를 먹을 기회도 없고, 바닷물로 만든 소금을 먹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요오드 부족에 시달리고 대대로 요오드 부족에서 오는 질환에 걸려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요오드는 1일 권장 섭취량이 0.15mg 정도로 매우 소량 필요한 미네랄이다.

원인은 알았지만, 대처 방법이 문제가 되었다. 한번 요오드를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매일 매일 먹어야 갑상선 질환에 걸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요오드를 먹으면 되지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매일 먹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누구나 먹는 소금에 첨가하여 공급하는 안이 채택되어 실행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내륙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시절부터 요오드 공급을 추진하였으나 지지부진하다가 2003년 법으로 요오드 소금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2007년도에 들어서서야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질병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다.

요오드 결핍이 임산부나 태아에 발생하면 IQ가 10~15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1/3 수준인 20억 명의 충분한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오드 부족은 후진국 내륙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국은 빵 속에 요오드 첨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2009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의 제빵 업체들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일반 소금을 대신하여 요오드 소금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법을 준수하게 되었다.

이는 전 국민이 먹은 빵을 통해 요오드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요오드 부족 문제에 직면한 이유는 해조류를 먹지 않는 식습관, 원래부터 토양에 요오드 성분이 부족하여 여기서 재배한 곡식이나 채소에 요오드 성분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요오드 미네랄이 첨가된 소금을 먹는 것도 요오드 섭취의 방법이다.

요오드 미네랄 부족하면 질병원인
1일 권장 섭취량 0.15mg으로 소량
갑상선, 신진 대사 조절 중요 역할

세계보건기구의 요오드 영양평가 기준에 따라 소변 내 요오드 배출량이 50㎍/L 미만인 경우 중등도의 요오드 결핍, 50㎍/L 이상~100㎍/L 이하인 경우를 경도의 요오드 결핍으로 간주하고 있다.

갑상선은 신체의 신진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갑상선호르몬' 을 생산하여 혈액 속으로 분비한다. 갑상선을 이루는 세포는 여포세포와 C-세포 두 종류인데, 각기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즉 여포세포는 갑상선호르몬을, C-세포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이 중 갑상선호르몬은 태아 및 영유아기의 성장과 지능 발달에 꼭 필요하며, 또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이용하여 갑상선호르몬을 합성하고 분비하기 때문에 요오드를 조금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갑상선 암의 예방요인이 된다.

요오드, 수십 가지의 미네랄 중의 하나인 요오드, 그 한 종류의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처럼 전 인류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치료법 역시 다른 대안이 없다. 요오드를 먹는 방법뿐인 것이다. 그것을 위해 누구나 먹는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여 먹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른 수십 가지의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 수십 가지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바다이고 그 바다의 미네랄을 모두 담은 소금을 먹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주)오씨아드 이사〉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마음책 다시 읽기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❺ 세상을 보는 다른 눈 – 차가운 혁명

▶ 한줄 요약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과 자비에서 나온다.

자비심이 세상을 바꾼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학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가해 행위를 확실히 중단시키는 것에 전념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뿐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그 잔학 행위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전념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 폭력을 근절하려는 우리의 방법이 철저히 비폭력적이라면 어떨까?

또 가해자를 서둘러 처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사연을 들어 보는 것에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 상상해 보라. 그렇게 하면 범죄자를 적절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 범죄행위를 낳은 원인과 조건을 따져 보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자를 증오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증오한다면? 개인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되고 결핍된 폭력적인 사람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는 각종 시스템을 향해 분노한다면?

분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다. 따라서 행동을 바꾸려면 더욱 창의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이것이 행동 변화의 원칙이다. 비통과 절망에 분노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의와 폭력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 하지만 분노가 고착된다면 지각의 폭이 좁아지고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분노도 우리의 시야를 제한한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격렬해진 분노에 다르게 반응하려는 결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우리의 목표가 전쟁을 종식하고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라면 분노는 그 목표 달성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도중에 우리는 불안, 희망, 슬픔, 좌절, 성공 등 온갖 일을 겪겠지만 어느 경우에라도 분노는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친절과 공감처럼 평화주의도 일종의 나약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힘'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잊어버린다. 폭력과 불의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전념하는 동시에 연민을 통해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가능하다.

이선 닉턴(Ethan Nichtern)은 상호 의존 프로젝트(Interdependence Project)의 창립자다. 상호 의존 프로젝트는 비영리 조직으로 심리학, 행동주의, 언론, 예술, 불교 명상 및 마음챙김 수행을 접목하는 일에 헌신한다. 그는 우리가 폭력 중단과 분노 통제의 그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때 자주 난관에 처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사회 규칙들 밑에 깔린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를 탐구한다면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널리 퍼진 서양철학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지향하도록 타고난다. 그러한 표현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한 철학자는 17세기의 토머스 홉스(Thomas Hobbs)였다. 이선은 비판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3S'라고 말한다. 분리(separate), 이기심(selfish), 두려움(scared)이 그것이다.

이 철학이 우세할 경우에 삶은 '타인과의 영원한 싸움, 자신과 제 가족을 끝없는 위협에서 지키려는 자기 몰두적이고 두려운 싸움'이 된다.

이선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더욱 만족스럽고 더욱 생산적인 삶을 위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며 이를 '3C'로 정의한다.

3C란 연결(Connection), 연민(Compassion), 용기(Courage)를 말한다. 그는 3S에서 3C로 옮겨가는 것을 '변형적 행동주의(Transformational Activism)'라고 부른다.

변형적 행동주의는 우리의 개인적인 내면 성찰 작업,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 행위, 사회를 바꾸려는 집단적 노력 등을 재조명할 것을 요구한다. 변형적 행동주의에서는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이해를 토대로 각자 내면을 성찰하는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큰 세상 속에서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 모든 전략은 더 많은 폭력을 양산하는 대신에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도덕적, 영적 성장에 필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이렇게 말했다.

"고삐 풀린 원자의 힘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꾸었다."

> **분노 고착화, 지각 폭 줄어**
> **친절·평화 대한 인식 강조**
> **분노통제 활용한 전환 필요**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얼마만큼 표현하는가에 따라 일상 사건을 접할 때 느끼는 자유와 수용의 정도가 달라진다. 다르게 반응하기 위해 습관적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데는 강력한 통찰과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항상 옳다는 독선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익숙한 것을 지속하려는 쉬운 방식을 버린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무조건 따르려는 충동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증오는 자비를 통해서만 극복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의 고함에 맞서 고함을 지르고 호전적 행동에 호전적 행동으로 되갚는 것이 자동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사람들을 좋고 나쁨 또는 옳고 그름으로 엄격하게 분류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러하다. 하지만 그런 분류를 토대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외로워한다.

용감하게 새로운 관점을 취할 때 우리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전달하면서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된다.

우리는 우리 대 그들로 나뉜 적대적인 세상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게 반대하는 거니까 내 적이야."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서 강하게 상호 연결된 세상으로 다 함께 옮겨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세상은 다양성을 축하하고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독창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제 적의를 품지 않는 것이 패배나 나약의 신호라는 생각을 버릴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이생의 삶을 개선할 새로운 방법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를 생각해 보라. 로벤 섬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교도관도 자기와 똑같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얀마의 정치가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를 생각해 보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십오 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한 수지 여사는 말한다.

"감금된 다른 많은 이들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자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적의가 바로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적대적인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저는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향해 적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미얀마 불교도들은 자애(metta)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성경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가 내포되어 있어요. 제가 '완전한 사랑'을 찾아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증오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두려움이 일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들의 일부 행위에 때때로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잠시 느끼는 것과 증오와 적의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꽤 다릅니다.

마틴 루터 킹을 생각해 보라. 적을 대할 때는 정의라는 장기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적 세계의 활은 길지만 정의를 향해 휜다."

그러한 차가운 혁명(cool revolution)은 의식의 엄청난 모험을 시작케 한다. 힘을 재정의하고 인내를 체념이 아닌 힘으로 보게 한다. 끔찍한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기회가 존재한다. 이것을 나는 2005년 런던 지하철역 폭탄 테러 사건 후에 깨달았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의 첫 번째 반응은 슬픔과 불안이었다. 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해 깊이 슬퍼했고,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기가 불안했다. 이 불안감은 당연하고 적절했다. 하지만 친구의 일곱 살 난 딸 윌라는 관점이 달랐다. 런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들었을 때 그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기도해요."

윌라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자기가 먼저 기도하겠다고 했다. 어린 딸의 기도문 첫 구절에 친구는 감동으로 전율했다. "나쁜 아저씨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사랑을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도약했다.

큰 존경을 받은 힌두교 지도자인 님 카롤리 바바(Neem Karoli Baba)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에서 어느 누구도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 말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생애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순간들과 가장 위대한 모험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적을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온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샤론 샐즈버그, 로버트 서먼 〈담앤북스 펴냄〉

농선 대원 선사의 전등록 30권, 화엄경 81권 완간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불교 경전의 정수인
대방광불화엄경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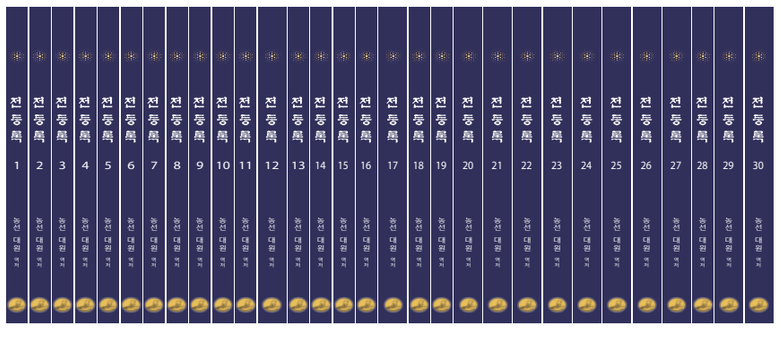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출간 완료!



화엄경 81권 세트 100만원 (출판 기념 할인)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에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밝혀 보이다

농선 대원 선사는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 81권'을 완간하고, 선문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30권' 1,463칙에 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최초로 전 공안을 맑은 물 밑바닥 보듯이 회통쳐 출간하였습니다. 그런 혜안(慧眼)으로 이번에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인 '전등록 30권'을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밝혀 보였습니다. 이 바로보임에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듯이 계합하여 참나를 깨달아 몸이 내가 아닌 '마음이 내가 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전등록 30권 ㈜도서출판 문젠
세트 45만원 (T.010-8670-1445)



대행 스님

내 하나의 보배를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거를 익혀라

주인공에 관함으로써 깨달음을…

질문 유튜브를 통하여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다른 수행 없이 주인공에 관하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이거 보세요. 지금 댁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육신과 정신계가, 이 싹과 뿌리가 같이 붙어 있는 가운데서 꽃이 피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음파가, 지금 향의 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느냐는 소리는 마세요. 왜냐하면 육신과 정신계가 둘이 아니게 맞붙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그런 가운데에 작용이 있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을 오직 믿고 간다면, 그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가고,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움죽거리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자꾸 변화돼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어머니!"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또는 "애, 아무개야!" 부르면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전생으로부터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어진 그 인연들이 지금 몸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를 빌리고, 자기 영혼의 뿌리와 인연이 된 그 생명들이 지금 혼합이 돼서 같이 작용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외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층 3층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아래층은 짓지 않고 2층하고 3층을 지으려니 그게 지어집니까? 그러니 나부터 안다는 것은 기초부터 다져서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지어야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모두 나부터 알아야 할 텐데, 나를 내가 모르고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내가 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이끌어 갑니까? 그 생명들로 해서 모든 것이 진화돼 가지고 털구멍을 통해 들고 나면서, 분자가 됐다가 입자가 됐다가 분열이 됐다가 한데 합쳤다가, 작용을 무수히 하는 묘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을 보지 마라." 이러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 이 자리를 잡고 내가 나를 발견한 뒤에 경을 봐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를 않지, 요게 틀리고 요게 옳고 요게 그르고 이걸 따지다 보면 이 공부는 백 년 천 년이 가도 못 합니다. 이건 글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의논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거 잡지도 말고 그대로 그대로, 바깥에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대치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리를 완전히 잡고, 내가 심안의 소리를 듣고, 심안의 소리가 뜻으로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게 활용이 됐을 때 그때에 경을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것도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되니 이거는 뭐, 천부당만부당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더라도 나한테 없는 것만 사 오랬지, 누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것 보고 탐내랬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뚱이가 배라면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배 안에 중생들이 잔뜩 들어 있느니라. 그런데 중생들이 이리 왈 저리 왈, 나도 옳다 너도 옳다 하고 나서게 되면 배가 뒤집히느니라. 그래서 가서 닿을 데를 닿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 배라면 배 속에 지금 중생들이 잔뜩 타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도 중생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잘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아니 되죠. 중생들이 이리 왈 저리 왈, 이것도 나서고 저것도 나서고,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이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다.' 하고 맡겨 놔야 이게 잔잔하게 다스려지죠. 그래야 배는 닿아야 할 곳에 가서 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다지고 또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잘 다스려서 잘 지어 놔야 위층은 저절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중은 생각 마시고, 우선에 내 선장한테 모든 거를 일임하고 내가 체험하도록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진짜로 믿고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쇠든지 금이든지 용광로에다 그대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의 물질적인 것 모두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바뀌져서 나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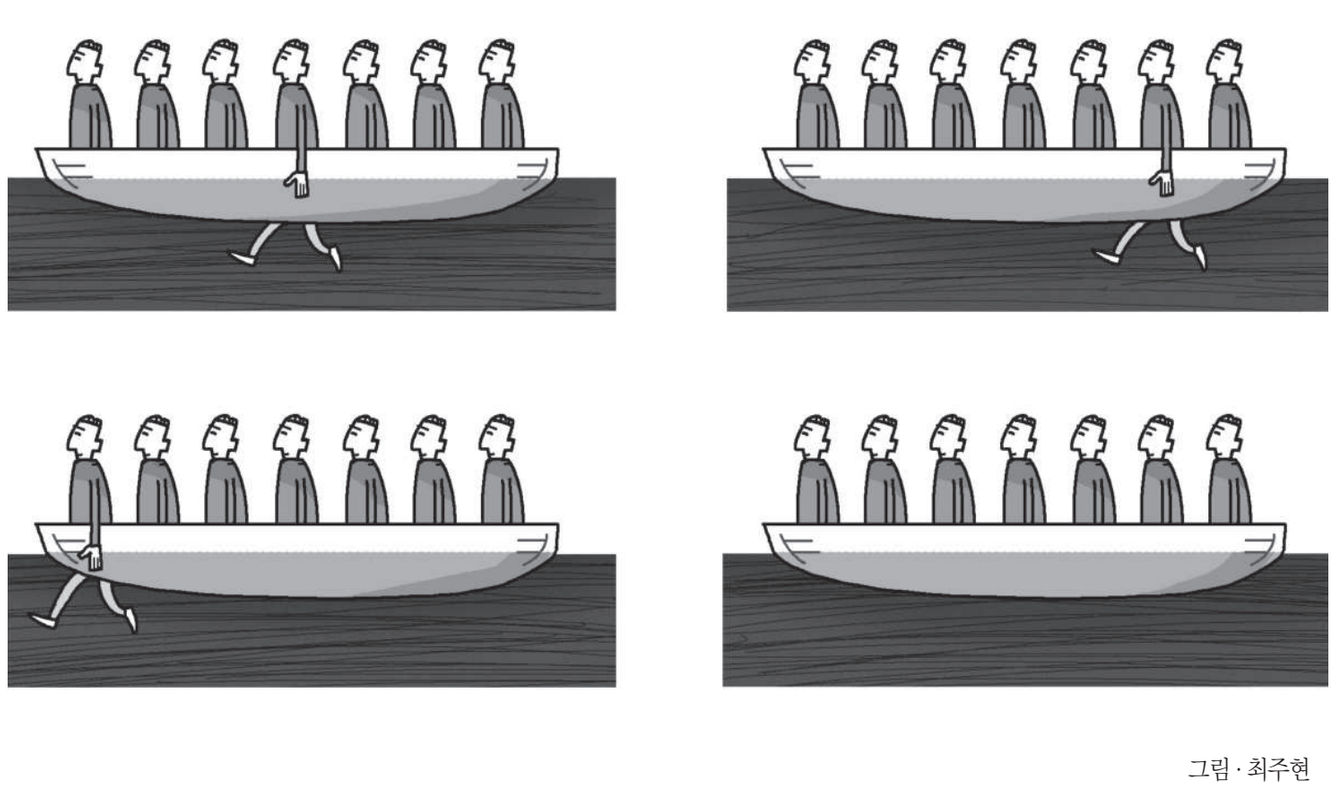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떻게 하면 잘 놓을 수 있을까요

질문 주인공에 관하는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다 맡겨 놓으려고 굳게 다짐했는데 뭔 일이 생기면 자꾸 바깥으로 헤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놓을 수 있을까요?

답변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바깥에서 닥쳐오든지 간에, 자기가 '좀 놔야지, 왜 놓질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호령을 치세요. '요놈아, 그래도 너라고 자꾸 그래? 놓지 못하구!' 하하하. 자문자답하라구요.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됐다가 바로 자기가 중생이 됐다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하는 거죠. 답답하게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딴 데서는 안 나와요. 딴 데서 주고 뺏어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허허 참, 너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러고 말이에요. 참 그게 재밌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야, 그것 좀 놔라.' 이러기도 하고, '너 참 슬기롭게 잘해 나가는구나.' 하고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궁둥일 쳐 줘요. '야, 너 슬기롭게 참 잘하는구나.' 그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 네 진짜로 진실한 그 마음이 어떠한 무서운 것도 타개해 나가니 참 감사하구나. 빈손 감사해.' 하고 뽀뽀도 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색경을 한번 보면서 색경에 내비친 그 입에다가 입도 맞춰 주고, 하하하.

전체가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 솥의 죽밥이에요. 즉 한 솥에 죽 끓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 딴 데서 와서 붙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나한테 주걱으로 쳐 넣으면 되는 거죠. 아주 그렇게, 자꾸 자꾸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물리가 터질 것입니다, 샘 솟듯.

소소한 일은 잘되는 듯한데

질문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경계가 닥쳤을 때 소소한 일은 관하면 잘되는 것 같은데 막상 큰일이 닥쳤을 때는 관해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답변 부처님 공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이 부처님의 법이자 생활이

☞ 22면으로 계속



대행스님 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을 갖지 말고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한다

☞ 21면에서 계속

지 우리들의 생활이 없이, 못났든 잘났든 우리들이 없이 부처님 법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우리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삼세를 초월함이 있고, 우주가 있고, 천차만별의 만물이 있고, 끝없이 흘러 도는 이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가지고도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육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한 치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누적이 돼서, 집착에 누적되고 욕심에 누적이 되고, 바깥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끄달리거나 안에서 해 오던 습성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우고, 한 다리로 절름발이로 걷게 되고, 애꾸눈이 되고 그러는 거죠, 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발 한 짝은 무의 세계에 두고 한 짝만 신고 나왔어요. 그 신발 한 짝을 내가 마저 신을 줄 알아야,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용무를 스스로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즉 평등공법을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도 붙지 않는다 이랬죠. 종자를 심으면 뿌리로 화하고 뿌리로 화해서 싹을 형성시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그 싹은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싹과 뿌리가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나가 상봉을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듯이 지금 그 싹은 뿌리에서만이 자기를 잘 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의심을 갖지 말고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처럼 싹이 어딨는지 뿌리가 어딨는지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머리가 깨이고, 물리를 알고, 또 과학이 어떤 건지 이론으로라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방에서도 보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뭣고?' 하고서 십 년을, 백 년을 있어 봐도 깨서 먹어 보지 못한다면 맛도 모르고, 종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벌레 먹은 잎새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바로 마음 도리에서 스스로 약사가 돼 줍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도리를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줄을 쥐고, 즉 말하자면 내 주인공 그 뿌리를 쥐고서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여보!" 하는 순간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듯이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게 될 때 바로 약사로 화한단 말입니다.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왜 못 믿고 바깥으로 그렇게 끄달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약사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이 있거나 그런다면 '바로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아?' 할 때에 관세음이 된다 이 소립니다. 가정에서도 찰나찰나, 누가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도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얘, 아우야!" 하면 아우가 되고, "자네 있나?" 하면은 사위가 되고 이렇게 찰나찰나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따지고 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다웁고,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여섯 가지를 대신 못 해 줍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깨닫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똥 누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말입니다. 어느 누가 대신해 줍디까? 그러니 이렇게 좋은 보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놓고 입력만 하세요. 정말이지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통신이 되면 대뇌에서 중뇌를 거쳐서, 찰나지만 말입니다,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이 안의 중생들이 다 작용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들을 다 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어야 내가 안에서도 조복을 받았고, 바깥에서도 조복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하나의 보배를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거를 익혀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기면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서 그냥 바깥으로 끄달리고, "조그만 건 되는데 큰 거는 안 됩니다." 이럽니까. 큰 거나 조그만 거나 둘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때에, 만약에 천 리를 간다 하더라도 요 문 바깥에 나가는 거리와 같습니다. 우주를 한 찰나에 한 바퀴 돌았다 하더라도 요 문 바깥이나 거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큰 거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깔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그냥 믿어 보셨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잘 배우고 학식과 지식이 많고 모두가 똑똑하셔서, 아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내가 이걸 그대로 믿어야 하나? 이거 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없으면서, 자기 몸뚱이의 한 개체에 생명들이 주둔해서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라고 내세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아는 게 많아서 말입니다. 진짜로 아는 게 많다고 말로는 안 그러죠. 그러나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르든지 알든지 무조건, 아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 놓고, 모르는 거는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고,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는 거니까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잖아.' 하고 관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직결되는 통신입니다.

> 전체가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 솥의 죽밥이에요.
> 고가 딴 데서 와서 불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 그냥 나한테 주걱으로 쳐 넣으면 되는 거죠.
> 자꾸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물리가 터질 것입니다, 샘 솟듯.

환자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질문 저는 자원봉사로 간병 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형식으로, 저희 불자들은 제불보살님의 가피력을 의지하여 쾌유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속 쾌차하기를 빌며 마음을 내기도 하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자기가 자기를 믿게끔만 해 준다면 이리로 동그라져도 주처가 거기 있고 저리로 동그라져도 주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도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다면 나는 항상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바깥으로 찾는다면 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허영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속에 종자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불성 종자가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靈)의 종자는 바로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장자라야 되겠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주처가 있고 나로부터 이 몸뚱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를 알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이름이 돼 버리고 자기 인식들이 그렇게 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레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이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위축시켜서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중생으로만 살아라. 거지로만 살아라.' 이런 거나 뭐 다름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타인을 믿는다면 모두 마구니의 장난과 같으니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에 그만, 거기에서 딱 막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딱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각자'라고 그랬거든요. '각자 너를 믿지 않는다면, 타의에서 구한다면 그건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못났든 잘났든 너로부터 이 세상이 있는 거지 너를 빼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처의 자기 주인공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바깥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건 이 진리의 이름만을 찾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죠. '불(佛)'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을 말한다. '교(敎)'는 일체 만물만생의 생활이다. 일체 만물만생이 생활을 해 나가는 거를 '교'라 그런다. 모든 생활에서 배우고 느끼고 지혜가 넓어지고 또 연구를 하고 창조가 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언어는 진리를 말하는 거지 어디 한 군데, 머리 깎은 사람이나 믿는 것으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수녀들이 머리에 쓰고 하는 거나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마는 이 세상 삼라만상이 천차만별로 그 수레바퀴에 끄달리고, 그냥 천차만별의 가닥가닥, 갈래갈래로 모습이 돼 있고 그러니 이것을 사람의 머리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무명초는 가차 없이 잘라 버려라, 나오는 대로 잘라 버려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나오는 대로 깎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원효 대사가 설총이 쓰레질을 해 놓은 걸 보니 말갛게 쓸어 놨거든요. 쓸어서 무더기를 지워 놓았는데 가서 한 움큼 집어서 다시 뿌려 놨어요. 이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없어져도 없어져도…, 우리가 지금 저 아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발 떼어 놓고 들어오는 격이란 말입니다. 한 발 떼어 놓으면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없어지는데 한 발 떼어 놓는 게 없다면 그냥 다 무효죠. 그러니까 역시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고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는 것이 이 진리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한테 이익하게 하려면 무조건 당신 마음에 주처가 있는 거니까 밖에서, 먼 데서 주님을 찾지 말라고 일러 주는 거죠. 당신을 벗어나서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깊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또 불자들한테 이익 되고 공덕이 되게 하려면, 마음이 합쳐져야 공덕이니까 한마음으로 한 공덕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 마음들이 한데 합쳐져서 일을 해 주니까 공덕이죠. 그러나 한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면 공덕이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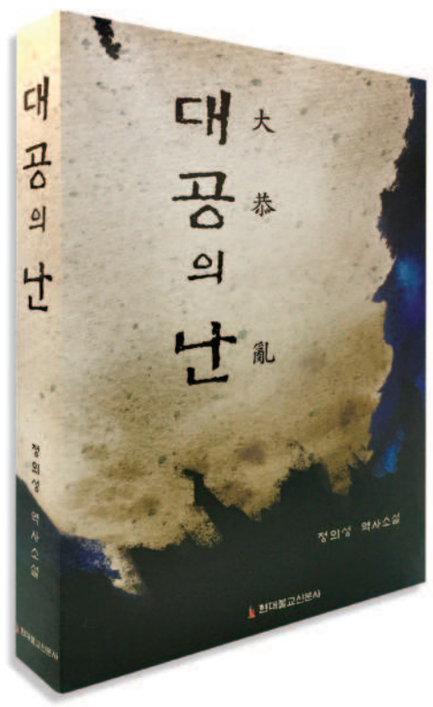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아니게 돌아가야 한다. 전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이 50%가 있다면 보이는 사람의 마음이 50%가 있다. 보이지 않는 몸이 50%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체가 50%다.' 하는 것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산 사람이 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체가 또 반이 있죠. 밤낮이 이렇게 돌아가듯, 살고 죽는 것도 그렇게 돌아가듯, 그러니까 불자에게는 당신 자부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 안에, 그 숱한 보살의 이름이 다 거기에 있다고, 당신네 아픈 걸로 비유한다면 그 약사보살은 바로 당신한테 있다고, 그 자부처의 마음에서 약사보살이 나온다고 그렇게 일러 주세요. 그렇게만 일러 주고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무진장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 02)732-1520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현불 논단

도어스테핑과 언론 소통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화제'
적극적인 소통 의지 상징한 행보
美 · 英 등 도어스테핑 일상 관행
현안 홍보 · 악재 선제 대응 활용

도어스테핑 안정위한 방안 고민을
표현 정제 등 메시지 관리 힘써야
도어스테핑, 새 소통으로 자리하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이 화제가 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퇴근 길에 기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대통령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도어스테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보다. 이렇게 시작한 도어스테핑에 대해 대체로 언론은 대통령의 언론 소통 방식을 진일보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잠깐 서서하는 약식 기자회견' 으로 풀이할 수 있는 도어스테핑은 미국 · 영국 · 일본 · 캐나다 등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은 즉석 문답 형식의 회견이다. 도어스테핑은 '집 앞 계단' 을 뜻하는 영어 단어 'Doorstep' 에서 생겨난 언론 용어로서, 영국 BBC의 매뉴얼에 따르면 언론이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취재원의 거처, 중요한 장소 등에 진을 치고 취재하는 것을 말한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도쿄 지요다구 일본 총리 관저에는 출퇴근 시간에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이 대기해 있는 게 일상이다. 이런 관행이 청와대의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물리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일본 총리는 출퇴근길은 물론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관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지난해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바현 지진 발생시 새벽 시간에 기자들을 부르는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밤에도 기자 앞에 나서고 있다. 국정 현안을 신속히 알리고, 위기 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전용 헬기가 뜨고 내리는 백악관 사우스론(South Lawn)에서 근처에 대기하는 기자들과 즉석 토크를 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시끄러운 환경 상 세밀한 질문이 어렵고, 보통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끝나곤 하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는 현장 대면을 통해 대통령의 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한국은 언론시스템과 언론 자유가 세계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례 회견의 횟수나 방식, 대변인이나 관계자의 충실한 브리핑은 미진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하고 바람직한 소통 방식이 관행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관련 참모들의 의지, 언론의 역량,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

소통 문제를 두고 정부과 언론 간의 긴장관계는 불가피한 속성을 가진다. 생존을 위해 상호의존적 공생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정보를 두고 벌이는 신경전과 갈등은 숙명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1일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나왔다는 이유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침 도어스테핑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코로나19 재확산은 핑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메시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도어스테핑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음으로써 도어스테핑은 하루 만에 재개되었는데,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가 지지하는 도어스테핑이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정제되도록 메시지를 관리하고, 종합적인 이미지 제고도 고려해야 한다. 메시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통령의 발언 빈도와 양을 줄이도록 참모와 장관들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도 있다.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뿐만 아니라 소통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와 태도가 더해져 형성된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의 산물인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임기 내내 지속돼 새로운 언론 소통 관행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긍정적 생각이 성공 부른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95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내리기위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닻을 내렸지요.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려고 냉동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선원이 확인도 하지 않고 냉동실 문을 닫아 버렸어요.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포르투갈을 향해 떠나고 말았어요.

냉동실 안에는 식량이 충분히 남아 있었지만, 선원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쇠 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에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시간과 날짜별로 새겨나갔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기록했던 것이지요. 냉기(冷氣)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 동상을 입은 부위가 견디기 힘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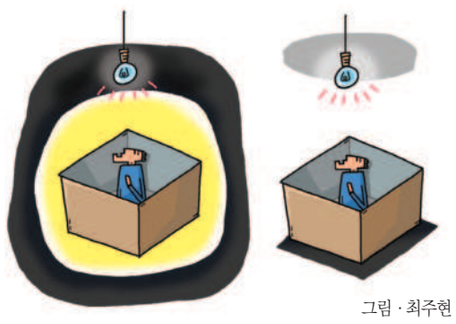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상처로 변해 가는 과정을 꼼꼼히 적었지요.

마침내 배가 리스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냉동컨테이너의 문을 연 선장은 죽어 있는 선원을 발견했어요. 선장은 벽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 고통의 일기를 읽어 내려갔지요.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인 것을 확인한 선장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지 않았기에 당연 냉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원은 냉동 창고이기 때문에 춥다고 생각했던 것이며 그 상상 때문에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생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의 발산이며 때론 신통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강한 신념으로 기도하여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자신에게 속삭여줍니다. 컨테이너 속의 선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에게 들려주었어요. 반면에 사명대사는 상황을 역전시킬 정도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관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이처럼 긍정의 사고방식과 부정의 사고방식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젠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세계불교학대회에 거는 기대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 일원에서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가 열린다. 본래 2020년 열려야 하는 대회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간 연기돼 오다가 마침내 개최되는 것이다.

세계불교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인 세계불교학대회는 1978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래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중국 명문대학인 저장대와의 유치 경쟁 끝에 얻어진 결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

대회 기간에는 36개국에서 250여 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석해 250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발표 주제 역시 불교철학부터 문헌학, 미술사, 역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윤리학 등 그 폭과 양이 방대하다. 최신 디지털 불교학의 성과를 선보이는 패널과 워크숍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발표를 통해 세계 불교학계의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불교학의 연구 수준은 세계적이다. 하지만, 국제적 교류나 리더십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제 한국불교와 한국불교학계는 세계적인 역량을 키우는 활동과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불교학은 인문 · 복합적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문헌학에서 시작한 근대불교학은 현대로 오면서 철학, 역사, 예술 등을 망라하는 인문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불교학도 이 같이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회가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인천불교 활성화 신호탄 되길

인천불교총연합회가 7월 19일 제32대 회장으로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인 능해 스님을 선출했다. 인천은 개신교의 교세가 강하기로 정평 나 있는 지역이다. 개화기를 거치며 서구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기도 하려니와 도서지역이 겹친 지역 특성상 개신교회가 자리잡기 좋은 환경이기도 했다. 현재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찰은 수십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조계종과 태고종 등 여러 종단으로 나뉘어 있다. 인천불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종단간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 포교를 이끄는 것이다.

태고종 인천 종무원장인 능해 스님은 취임과 함께 인천불교 화합과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에는 올해 2월 대한불교청년회가 인천지구 재설립을 선언하는 등 인천불교 활성화에 대한 원력이 모아지고 있다. 대불청 인천지구는 지속적인 불자 감소와 지도스님의 부재로 법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포교에 어려움을 겪어 1997년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능해 스님은 최우선 과제로 인천지역 불자 배가 운동과 지역 내 각 사암의 민원해결을 위한 창구 개설을 꼽았다. 여기에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역 불자 배가 운동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인천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등에서의 활발한 전법 포교가 기대된다.

한국불교는 지역불교의 침체를 심각한 눈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젊은 불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허리가 끊어지는 일이다. 그동안 개신교세가 강했던 인천지역에서 새롭게 불교세가 일어선다면 한국불교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번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장 선출을 계기로 지역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중비결’의 3차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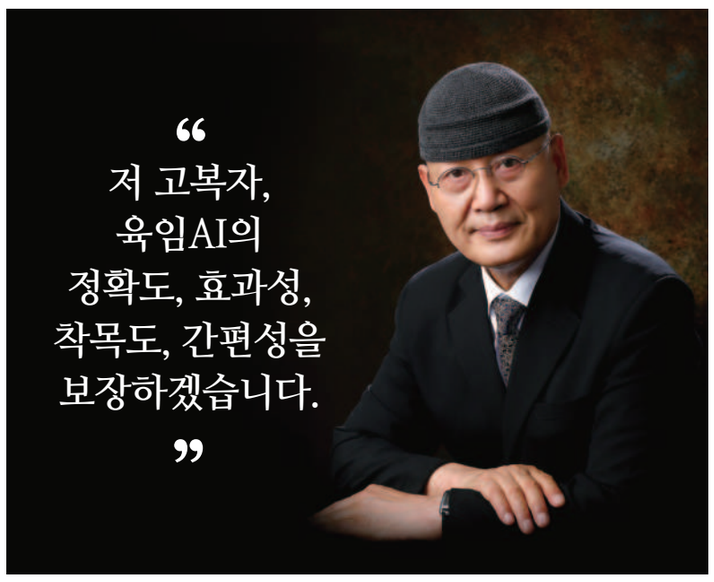
친견 상담용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육임 AI’

지난 2001년 3월에 첫 출시하여 20여년 동안 판매해 온 신뢰성을 바탕으로 1년 반에 걸쳐 쓴 ‘육임주야록(六壬晝夜錄)’을 본 친견 상담용 어플 ‘AI’에 수록시켜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에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복자 효사





과학성을 담보했습니다.

본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육임 AI’**는 과학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매년(無限永久的) 매월 매일 매 시간별로 찾아오거나, 전화 받거나, 찾아가 만나는 사람의 내외면사(內外面事)를 말 한마디 묻지 않고 듣지 않고도 그 시간만으로 미리, 먼저, 즉시 판단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의 첫 사람에 이어 여러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다음사람’** 단추만 누르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해당 인의 익명성(匿名性)이 가감 없이 드러납니다. 상대의 신변사는 물론 당면사의 성부(成否) 및 해결력이 제시되어 있고, 일생사의 태생 성, 정체성, 과거궤적(過去軌跡), 그리고 적합(適合)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자, 가서 만난 자, 전화 걸어온 자에 대해 출생 연월일시를 물어보거나 받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묻지 않고 듣지 않고 같은 시간에 여러人을 상대로 이것들이 가능한가? 또 어김없이 맞는가?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인가?**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 묻거나 듣지 않고도 미리 먼저 속속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생애(生涯)라는 시간성과 몸체라는 공간성은 개체존재로서 항상성(恒常性)을 갖습니다. 여기에 역동성(力動性)이라는 만남(遭遇)으로 타인과의 이해관계를 이루며 천변만화(千變萬化)적 역정(歷程)이 사회성에 간여되어 누구는 부귀하고 누구는 빈천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왜 이루는 것은 크고 많고, 작고 적고 하는 차이가 생길까, 왜 신분이 나뉘며 부귀빈천 할까? 만고이래(萬古以來) 불변법칙과 변화법칙을 생성(生成)하는 해- 달- 별- 땅의 기운과 물리력은 사람을 포함한 유정만물(有情萬物)에 시간을 허용해 일생(一生)을 갖게 하고 공간성에 포섭(包攝)된 몸체를 부여해 위치 장소를 오가는 주체와 객체로 오늘, 내일, 다음 달, 내년, 10년 후를 대비하고 기약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용(利用)하면 내 것을 크게 이루어 많이 쌓을 수 있고 이 것을 도외하면 번번이 무너져 빈천하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은 법칙을 품수한 대자연성으로서 유한하고 흠이 따르는 인격성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내 손(手)안의 ‘육임 AI’ 그 누구든 그 익명성(匿名性)을 해체시켰습니다.

저희는 개개 적 시간성에 담긴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유추하고 공간성에 의해 운위되는 몸체의 극조 점(極組點)을 규명하여 방문자의 지난 행적, 현재실정, 다가올 결과를 **다양한 각도 및 항목으로 측정**했고, 이로서 방문자 본인만 아는 **‘익명성’을 적나라하게 해체**시켰으며, 다만 그 효과적 과실(果實)은 판단하는 각기의 목적과 역량에 맡겼습니다.

침범鬼 침해崇 산소탈(묘지 속 상태) 사망내력 대상육친을 명시했습니다.

즉, 방문(전화)자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사를 **초사**(初辭) 1.핵심 2.고전을 병용해 우리의 최초발언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고, 인간사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할까 말까’에 대한 정직한 답(答)을 천기응집체인 **‘사과삼전’**의 결론으로 달았으며, **‘국수해설’**로 아쉽고 억울한 미결(未決)사안에 대한 해결방책을 명시했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냄새나 숫자도 없이 우리의 소원 사를 수시로 방해하는 ‘**형이상**{形而上:귀신 부정}’의 위해(危害)와 사망내력과 그 가족력(육친)을 냉정히 명기했습니다.

단박에 방문(전화)자의 남녀별 생업 가정 흥 · 쇠 여부가 판별됩니다.

이외, 아래에 나열한 항목마다 가감(加減) 없이 정측(正測) 했고, 상대방의 생업(生業)흥망, 가정성쇠(盛衰) 및 타개(打開)방법, 질병의 치(治) 불치 및 치료방위책(策)과,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안이더라도 피차(彼此) 이해입장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비밀사안’까지 끄집어내 각기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간편성과 정확도가 속 시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동 중이거나, 만난 즉석에서, 아니면 약속된 시간 전에, 미리, 휴대폰의 ‘아이콘’만 찍으면, 그날의 해당시간 화면에 자동(自動)으로, 부부 동시 색정, 1남 2녀 1녀 2남 삼각관계, 소송관재(승패여부포함), 권리강제양도, 직위해탈, 질병, 독신, 과부, 이혼심, 부부갈등, 각방부부 사 등과, 시보법(時報法)의 어떤 용건으로 찾아(전화)왔는가? 내정법(來情法)의 현재 처한 전체적실정은 어떻고 구체적 상황은 무엇인가? 등 과, 비밀사, 고민사, 소망사, 성취 달성사 여부 등 여러 내밀한 내용들이 뜨기 때문에, 인간사 어떤 문제든 즉시 즉각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祈禱) 제의(祭儀) 치성(致誠) 부(符) 효과유무(有無)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재언(再言) 드리자면, 이 앱 **‘육임 AI’**는 상대가 숨기는 신변사의 비밀, 도모사안의 대소규모, 당면소망사의 성부, 길고 짧고, 무겁고 가벼운 일의 좋고 나쁨, 맘먹은 일의 진퇴여부, 경영사 또는 진행 사에 있어 명(明)은 명대로, 암(暗)은 암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는가? (**明의 시작-진행-절정-하향-明끝 여부, 暗의 시작-진행-절정-하향-暗끝 여부**)가 명료하게 적시되어, 계획과 방비를 **교시**(敎示)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목 사회단체 국가 선출직(長)의 성품과 업무수행 결과 치를 예측했으며, 특히 형이상(귀신침범, 부정침해, 묘지 탈 여부)에 의한 작사(作事)위배, 병질고역(病疾苦疫)에는 **치(병지나감), 불치(신체부위개소)**를 명기하고, 이에 따른 **방지수법(기도, 천도, 구병시식) 효과 유무**를 달았으며, 소망성취(成就)이사이전 길 방(吉方-昇進 增産 貴人)을 지정했고, **상대방의 ‘나’에 대한 속심(內心), 즉 고집, 설득, 불성, 신뢰 여부**를 오차 없이 명기함으로서, 친견상담의 **대면력(對面力)을 높여놓아** 오랜 기간 써오신 분들로부터 가히 **백미(白米)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당일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택 또는 직장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를 적시하고, **구재(求財) 길방(吉方)도 표시**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에 즈음하여 극부(剋父) 극모(剋母)자녀 인지, 효성 출세자녀인지를 구별시켰고, 여기에 기준하여 **임신출산의 시기(年)를 조절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어 남녀 각각의 **태생적 성품과 삶의 궤적을 간결 요약하여 정확히** 나타냈습니다. 혼인 사에, 남녀 각기의 **용모의 미추, 가문의 성쇠를 비교**하도록 했고, **남녀의 결혼시기**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남녀의 **성감력(性感力)과 선호태위(選好態位)**를 적시했습니다.

속도성과 효과성의 강렬함이 백미입니다.

좀 더 조밀하게, **득실(得失)사**(이익이 될 자인가 손해(피해)나게 할 자인 가, 무능력자인가), **아타(我他)사**(본인이 저지른 일인가, 당한일인가), **미기(未旣)사**(이미 일어난 일인가, 다가올 일인가), **신구(新舊)사**(새 일인가, 오래된 일인가), **내외(內外)사**(바깥일인가, 내부가정사인가), **표리(表裏)사**(겉으로 드러내도 좋은 일인가, 뒤로 감추고 싶은 일인가), **충배(忠背)사**(충성할 자인가, 배신할 자인가), **진위(眞僞)사**(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천성선악(善惡)사**(선한자인가, 악한자인가, 보통인 자인가, 또는 선한 결말이겠는가, 악한 결말이겠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묶어놨습니다. 예정된 행사에 많이 모이겠는가, 적겠는가, 안건반대자가 있겠는가, 제압되는가, 완강 반대로 부결되겠는가, 금전대차(貸借)약속이 이행되겠는가, 불이행되겠는가, 도모사가 어렵겠는가, 용이하겠는가, 선후 처신과 방법을 어떻게 할까, 상대와의 관계가 친화하겠는가, 위배되겠는가, 가출 인이 멀리 갔는가, 가까운 곳에 있는가, 원근왕래, 귀가 생사여부, 임대 자와 임차인 양자 간의 장차 적 사이, 이해관계는 어떠한가, 자금조달방위는 어느 쪽인가, 자금이 되나, 안 되나, 소망성취(귀인 승진 재산)를 위해 어느 방위로 이사이전해야 하는가, 방문(전화) 상면자의 용건(또는 사업금전사건규모)이 큰가, 작은가, 등등이 **명명백백**합니다. 이외 일상생활에서 크게 도움 될 여러 항목이 많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내와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다른 분(分)단위의 시간 경계를 **‘국내지역설정’**메뉴얼에 부여했고, 중국, 일본, 동남아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중동 등 세계 각국의 수도 및 주요도시의 날짜와 시간을 **‘국외지역설정’**으로 구분시켜,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내처럼 쓰일 수 있도록 정확도와 활용도를 보장시켰습니다.

당장의 방비(防備)와 이후사(以後事)의 대비성(對備性)이 최고입니다.

또, **지난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만났던(전화) 자나, 오늘 이후 어느 연월일시(年月日時)에 만나기로 약속된 경우 ‘일자변경’ 메뉴얼에 전, 후 연월일자와 해당시간만 기입하면 상대의 당시 정황들을 뒤늦게라도, 또는 미리 알아 주요 사에 만반대비 하게끔** 공을 들여놓았습니다. 위에 드린 말씀과 아래 항목 모든 것에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도 미리 알고 먼저 판단하여 주요한 이해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고, 또한 최적중(最適中)의 발설(發說)로 기선(機先)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도록 착목도(着目度)와 심리성(心理性)이 잘 조절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하며 확실한 답(答)이 달렸습니다.

이후 단 한번, 상대방의 띠를 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물어올 26개 항목**(모망사 공명사 구재사 구직사 시험사 혼인사 임신사 생업사 가정사 이전사 소송사 질병사 매매사 여행사 도난사 尋人사 待人사 면접사 채용사 투자사 승부사 가격사 경작사 묘지사 귀신사 부정사)**에 답을 단 다음, 성사(成事)가 확실한 경우 *(별표)를 해 놓았기 때문이며, 각 띠별로 **최종결론에 이르는 상황변수 실태를 정확히 기입해놓은** 이유입니다.

육임- 인사신시(人事神示)의 명성에 충실합니다.

전국의 현인 기사 이인 여러분. 이 세상 인간사의 조화와 흥망성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되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드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되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되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는다는 사실성을 확연히 알면서도 흥하고 귀하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고물가 저 소비 시대의 예비(豫備)- 다방면 타개책으로 최적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우리가 겪는 흉화(凶禍), 또는 삶의 질곡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경험적으로 이어져 왔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기에, 저희는 본 앱 **‘육임 AI’**에 인사신시(人事神示)로 정평되어 있는 육임술학(六壬術學)에 치열한 연구를 더하여 **이 정확도, 이 속도성, 이 간편도, 이 효과성**이 금세(今世)의 추이를 업고 장구한 생명력과 역사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인사만단용**(人事萬斷用)으로 개발했습니다.

한글로 쉽게, 간결용어로 착목도를 위주 했습니다.

그렇고 보면 이 ‘소프트웨어’가 가진 사용효과는 여러분의 권위에 크게 이바지될 **‘보물’**이 틀림없겠습니다. 본 앱 **‘육임 AI’**는 지난 2019년 9월에 출시되어 전국 현인 기사 이인 제현의 애호를 받은 **‘장중비결’의 3차 업데이트 제품**임을 강조 드리면서, 본 앱 **‘육임 AI’**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육임활용서 ‘六壬來情秘法‘, ‘六壬刪策’ 등과 육임학습서 ‘六壬講論’ 등등 100여권(60권 전질, 12권 전질 다수, 6권 전질 다수, 상하권 다수, 단행본 다수)을 저술 발간했고, ‘曉史秘訣’ 등 CD프로그램 다수를 발간하여 큰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애호를 기대합니다.

■ **배본** : 1. 입금(카드결제 포함) 즉시 구입자 본인명의번호확인 후 신청 휴대폰, 본인명의번호부여된 태블릿PC(안드로이드)로 파일 전송합니다.
(아이 폰用은 9월 15일 발매 예정)
2. www.gabook.co.kr 상단 우측 ‘접수하기’에 접수하십시오.

■ **관리** : 1. 본 앱의 권위를 위해 1년 단위로 추가항목을 선정, 업데이트 후 전송합니다.
2. 차기 업데이트 내용 : 생업변수, 가택변수, 가정변수, 진행사 초반변수 중반변수 종반변수, 12년간 나이별 변수, 택일출산, 일상생활 간단비법, 질병, 요수판단 전송예정
3. 구입구동 후 파손 분실 번호변경 시 기존 1대 한정으로 새 파일을 몇 번이고 무료 전송해 드립니다.

■ **발간** : 비영리법인 도서출판 가북 부설 육임AI연구소
www.gabook.co.kr Email. gabook0909@gmai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2길 28 청록빌딩 503호

■ **문의전화** : **02-567-3850 / 010-2536-3850**
■ **판매가격** : 93만원 (현금입금 및 전국 카드결제(전화승인)- 3개월 분할)
■ **입금계좌** : 농협 301-0252-7245-11 (가북)